수·목 드라마 2차전 돌입

metro

메트로 2014년 4월 2일 수요일 제2547호 www.metroseoul.co.kr

김연아 잠 못드는 공주 변신

코스피 올해 첫 1990선 돌파 코스피가 닷새 연속 상승하며 올해 첫 1990선을 넘어선 1일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딜링룸에서 여직원이 웃으며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전날보다 6.37포인트(0.32%) 오른 1991.98에 장을 마쳤다. /뉴시스

알뜰폰 훨훨 날자 대기업 눈독

이통사 영업정지 여파·LG유플러스 구체 검토 '쩐의 전쟁' 가시화, 중소업체들 "이게 상생이냐"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영향 때문일까. 알뜰폰(MVNO) 시장이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를 통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는 데 대해 검토 중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미디어로그를 통한 알뜰폰 사업 진출 계획은 단지 사업 다각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라며 "아직 검토 단계일 뿐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LG유플러스는 2일 '영업재개에 따른 서비스 전략'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어 이날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이통 3사 중 SK텔레콤만이 SK텔링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상황이다. 앞서 KT 역시 알뜰폰 사업 진출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당시 KT 측은 "검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이통 3사 외에도 CJ헬로비전, 이마트, 에스원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면서 각종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 중소 알뜰폰 업체들과의 경쟁에 뛰어들면서 결국 '쩐의 전쟁'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대기업 계열 알뜰폰 업체들만 몸집을 불릴 뿐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실제로 현재 알뜰폰 시장도 CJ헬로비전의 '헬로모바일'이나 SK텔링크의 '세븐모바일' 등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들 에넥스텔레콤 등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뒤따라가고 있지만 자금력에서 밀리는 만큼 마케팅 등에서 다소 뒤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통 3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알뜰폰 업계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통신시장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이통 3사는 보조금 경쟁으로 지나친 출혈 경쟁을 이어왔다. 이로 인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잇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왔고 통신 시장에 대한 여론도 좋지 못하다.

반면 알뜰폰 시장은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에 따르면 지난달 알뜰폰은 가입자 7만3081명의 순증을 보이며 역대 최고 가입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에 비해 이통사 영업정지로 인해 13일부터 단독 영업을 진행 중인 SK텔레콤도 6만6981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하는 데 그쳤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8만9837명, 5만2225명의 가입자 순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250만 명의 가입자를 기록한 알뜰폰 업계는 올해 450만 가입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체국, 농협, 편의점, 양판점 등 유통망도 넓어지면서 알뜰폰 시장에 대한 전망도 밝다. 이처럼 성장세에 올라있는 시장에 기업들도 눈독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들이 앞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실상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중소업체들의 밥그릇마저 빼앗으려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알뜰폰 시장 역시 성장 기조에 있으니 대기업이 뒤늦게 진출하려는 것은 중소 알뜰폰 업체 죽이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에서 나서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진출 제한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기업들도 중소업체와의 상생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준기자 jp0402@metroseoul.co.kr

새벽잠 깨운 5.1 지진 태안서 역대 4위 규모

충남 태안 서격렬비도 서북쪽 해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1일 오전 태안과 서산지역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에 새벽잠을 설치는 등 작은 소동이 빚어졌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8분께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쪽서북 100㎞ 해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어 오전 9시25분께도 서북서쪽 100㎞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태안 지진으로 충남 태안반도지역에서는 창문이 흔들렸고(진도 3 정도),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도 창문과 침대가 흔들리는 정도의 지진을 느꼈다.

특히 동대문구에서는 아파트가 흔들리고 서울 성북구에서는 단독주택이 흔들리는 지진동을 느낀 것(진도 1~2 정도)으로 알려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앞서 지진 규모가 컸기 때문에 추가로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본 지진보다 큰 규모는 아닌 만큼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진은 1978년 기상대 관측 이후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윤다혜기자 y***@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 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동해 저도어장 개방 북한이 지난달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 사격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오후 서해 5도 조업이 재개됐다. 한편 동해 최북단 저도 어장이 이날 올시즌 개방에 들어가 어선들이 부리 지어 어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억원 횡령 롯데홈쇼핑 임원 구속

인테리어 대금 과다지급하고 차액 받아

검찰이 납품업체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롯데홈쇼핑 전직 임원과 인테리어 공사비 등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현직 임원 등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1일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로 롯데홈쇼핑 김모(50) 고객지원부문장과 이모(50) 방송본부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문장과 이 본부장은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 업체 6곳에 허위 과다 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면서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문장의 횡령 금액은 6억5000만원, 이 본부장은 4억5000만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전직 임원 이모(47)씨는 2008년 12월~2012년 10월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소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방송 편성 시간이나 횟수 등 홈쇼핑 방송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식 상품기획자(MD) 정모(44)씨의 경우 2007년 12월~2010년 1월 방송 편의 제공 등의 청탁 대가로 납품업체 1곳으로부터 2억70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17일부터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이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홈쇼핑 납품업체 7곳의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15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횡령 및 리베이트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회사 및 그룹 고위층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 중이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클린 선거 실현하겠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일 전국 지자체에서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이 열렸다. 대전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원들이 대전역 서광장에서 공정선거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전시선관위 제공

우리 임원은 고통분담 했을까

기자 수첩

박선옥
<경제산업부 기자>

지난달 31일 5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가 일제히 공개됨에 따라 억대 연봉이 꿈인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작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낸 건설사 직원들로서는 '우리 회사의 임원이 나와 같이 고통 분담을 했을까' 궁금했을 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급감한 실적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얼음판 같은 생활을 한 건 직원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다.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GS건설 허창수 회장과 허명수 회장을 비롯해 삼성엔지니어링 박기석 사장, SK건설 최창원 부회장, 김 이사회 의장,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등은 수억원의 연봉과 상여금을 챙겼다.

롯데건설 역시 작년 4분기 영업손실 993억원과 당기순손실 2047억원을 기록하며 신용등급 하락 위기에 처했지만 박창규 전 대표이사는 6억3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이사도 각각 4억2000만원씩을 수령했다.

이 중 몇몇은 실적 악화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했지만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대가지고는 용색한 게 사실이다.

억대 연봉은 직장인들의 꿈이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임원들의 연봉을 보고 직장인들이 억대 연봉의 꿈을 계속 키울지, 회사와 경영진에 등을 돌릴지 판단해야 할 때다.

국적 불명 무인항공기 백령도 추락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무인항공기 1대가 백령도에서 추락해 군 당국이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

정부 소식통은 1일 "어제 오후 4시께 백령도에서 무인항공기 1대가 추락했다"면서 "군 당국이 이 비행체를 수거해 정밀 감식 중"이라고 밝혔다.

이 무인항공기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시 봉일천의 야산에서 추락해 발견된 것과 기체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진은 일본산, 각종 부품은 중국 제품으로, 소형 카메라가 장착돼 군은 비행체를 분해해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를 정밀 분석 중이다.

전날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500여 발의 각종 포탄을 발사한 이후 추락했다는 점에서 정찰 목적의 북한 무인항공기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선준기자

뉴스 & 뉴스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험 24대 1 경쟁

●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5084명이 몰려 평균 2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 중 3명을 선발하는 감사원에는 무려 310명이 지원해 7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명을 뽑는 국방부(52.5대 1)와 10명을 채용하는 교육부(51.1대 1)가 뒤를 이었다.

성추행으로 사망 여군장교 순직 인정

●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군 육군 부대에서 근무 중 상관의 성추행 괴롭힘으로 자살한 여군 오모(28·여) 대위가 순직 처리된다.

1일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육군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오 대위의 사망 사유가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돼 순직을 인정하기로 했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자" 공식 제안

최경환 새누리 원내대표 연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폭력 국회에서 오는 정치 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국회 선진화법이 무능 국회의 원인이 돼 정치 불신을 가중하고 있다"며 "무(無)쟁점 법안 신속 처리 등을 골자로 4가지 보완책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간 무쟁점 법안은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부터 '그린 리본'을 달고 '그린라이트법'으로 정해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자"고 말했다.

그린라이트법 이외에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 설치 ▲일정 기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의를 구성하는 방안 ▲법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을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도입해놓고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우리 잘못이다. 여야 모두 준비도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이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hjh@

북한 매체 '드레스덴 선언' 비난

북한의 공식 언론 매체들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얼마 전 독일 행각 때는 급시까지도 동족 간의 비방중상 중지를 떠들던 그 입으로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횡설수설했다"며 "잡동사니들을 이것저것 긁어모아 '통일 제안'이랍시고 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일 "시정잡배도 입에 담는 걸 꺼릴 표현을 사용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거듭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신들의 소위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중상 중단을 주장하면서 우리 국가원수를 저열하게 비방함으로써 북한은 얼마나 자신들이 이율배반적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준기자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한다

한전·서울의료원·감정원 건물 옮긴 후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72만㎡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72만㎡가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 공간인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조성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서울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은 세계 주요 관광·비즈니스 도시지만 마이스(MICE)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서울의료원 등 공공시설이 이전되고 한국전력공사 본사 이전이 임박하면서 이 지역 일대를 서울의 미래를 이끌 핵심 지역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국제 업무, MICE,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4대 핵심 기능을 유치·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제 업무·MICE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전 부지(7만9000㎡)와 이전을 완료한 서울의료원(3만2000㎡), 한국감정원(1만1000㎡)을 개발하고, 민간 지원인 코엑스(19만㎡)를 증축한다.

올해 11월 이전하는 한전 부지에는 1만5000㎡ 규모의 전시·컨벤션과 국제업무, 관광 숙박시설로 재쉬지고, 한국감정원 부지에도 MICE 지원시설들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시는 한전, 한국감정원과 사전 협상을 통해 부지의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부지의 20~40%가량을 공공기여로 받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설이 낡은 잠실운동장(41만4000㎡)은 국제 스포츠 경기는 물론 대규모 문화 공연이 가능하도록 개축된다.

동시에 탄천을 공원화하고 봉은사, 코엑스~한국전력~서울의료원, 탄천~잠실종합운동장~한강을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또 영동대교를 지하화해 쇼핑 여가·문화시설을 하나로 연계할 계획이다.

대중 광역 교통 인프라도 확충된다. KTX와 GTX, 남부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와 경전철 위례신사선을 복합지구와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연주기자 mlan@metroseoul.co.kr

'부모님 검사합니다' 1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이 법복을 입혀준 부모님과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부 노후자금 최소 월 136만원

연금공단 50세 이상 조사

50대 이상 중·노년층들은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최소한 부부 기준 월 136만9000원, 개인 기준으로 월 83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성공적 노후와 노인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실태' 보고서에서 전국 50세 이상 524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부가조사(2012년도)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응답자들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맞을 경우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부부 기준 136만9000원, 개인 기준 83만4000원을 꼽았다. 표준적인 생활을 위한 '적정 생활비'는 부부 192만9000원, 개인 119만3000원이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별로는 60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 수준이 더 높았다. 그러나 실제로 노후 준비 상황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다.

50대 응답자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에 가입된 사람은 3명 중 1명인 33.6%에 그쳤고, 공적 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예상 수급액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월 54만원에 불과했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벌써 여름?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한 외국인 관광객이 이날 가동을 시작한 분수대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허재호 벌금 내겠다"…사실혼 여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사실혼 관계 부인이 검찰 조사에서 벌금납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31일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H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벌금 납부와 관련해 조사했다.

H씨는 조사 과정에서 벌금 납부 의사를 밝혔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벌금 납부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시점 등은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도 일단 H씨의 진술 이행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H씨는 전남 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을 소유한 HH 레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살던 아파트를 인수한 HH 개발, 뉴질랜드 현지 기업과 부동산 등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11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가족들을 설득해 빠른 시일 내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다혜기자

공공조명 모두 LED로 교체

서울시가 2018년까지 모든 공공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철 1~8호선 모든 역과 전동차 조명 66만 개를 모두 LED로 교체하고, 25개 구청의 조명 15만 개와 공영시장·학교 조명 6만 개도 바꾼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2만 가구와 복지시설 160곳의 백열등 조명을 LED 조명으로 무료 교체해줄 예정이다. 새로 건설되는 공공건물의 조명은 100% LED로 설치하도록 했다. /정연주기자

문화재보호단체 대표가 도굴

국고보조금을 받고 활동한 문화재 보호단체 대표가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 수백점을 도굴해 판매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상북도 지역 비영리단체인 모 문화지킴이 대표 장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도굴 사범 박모(61)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7년 넘게 경북 구미·칠곡 등 일대에서 탐침봉으로 땅속 공동묘 매장 여부를 파악하는 수법으로 도기·토기류 233점을 도굴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건축일을 하던 중 통일신라 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가 40억원 상당의 석조약사여래좌상을 도굴해 단돈 200만원에 처분했다.

/윤다혜기자 [illegible]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서거

2005년 4월 2일 재직 26년 동안 11억여 명의 가톨릭 신도들을 이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숨을 거뒀다. 1920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그는 한때 배우이기도 했으나 신학에 몰두하여 1978년 58세의 나이에 교황으로 임명됐다. 이탈리아 사람이 아닌 사제가 교황에 뽑힌 것은 455년 만의 일로 교황청 역사상 처음이었다. 역대 어느 교황보다 활발한 해외 순방 활동을 했던 그는 20세기 냉전시대에 세계의 평화와 변화를 위해 노력하여 '평화의 사도'라는 칭송을 받았다.

청소년 의료직업 체험' 운영

서울시 동대문구가 오는 12일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청소년 의료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병원 및 대학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병원 재단 대학교 탐방으로 구성됐다.

종량봉투 사용 50% 줄인다

서울시 강서구가 공공청사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 사용량을 지난해 대비 50% 이상 감량 목표로 쓰레기 줄이기에 나선다. 구는 먼저 부서 내 사무실의 재활용품 수거방식을 5품목 이상으로 하며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추진

서울시 관악구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닌 주민들의 취업참여를 연계 지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정시설 현재 모습(왼쪽)과 조감도.

옛 영등포교도소 주민에 개방

3일 오후 해설사 동행 견학 프로그램 진행

서울시 구로구가 이달 철거 예정인 고척동 옛 영등포교도소의 주민 개방 행사를 오는 3일 개최한다.

영등포교도소는 1949년 부천형무소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1961년 부천교도소, 1968년 영등포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됐다. 2011년 5월 지금의 서울남부교도소로 이름이 바뀐 후 그해 10월 구로구 외곽 지역인 천왕동 새 교정시설로 이전했다.

이 기간 동안 김근태 전 민주당 고문,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 지강헌, 고문전문가 이근안,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인 전경환, 시인 김지하씨 등이 수감됐다.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주민 개방 행사에서는 교도소 담장 철거 퍼포먼스·시설 견학·감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담장 철거 퍼포먼스는 1949년부터 올해까지 65년간 위치했던 영등포교도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의미와 현장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청장과 구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견학 프로그램은 영등포교도소의 곳곳을 둘러보는 형태로 진행된다. 입소실·면회실·작업장 등 옛 교도소의 모습을 생생히 살펴볼 수 있다. 오후 1시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운영되며 해설자가 동행해 교도소의 연혁과 주요 시설물의 특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독방과 10인실 감방 체험도 마련된다.

또 시 남순 살풀이·풍물패 길막기 등의 공연이 마련되며 교정시설의 연도별 변천사를 기록한 사진전도 펼쳐진다. 교도소 체육관에서는 교도소를 배경으로 촬영된 '7번방의 기적', '하모니' 등의 영화도 무료로 상영된다.

구는 요청자가 많을 경우 견학 프로그램을 하루 연장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h@metroseoul.co.kr

이성 구로구청장 인터뷰

역사의 현장 볼수있게 참가자 감방체험 가능

-행사를 어떻게 기획하게 됐나

"영등포교도소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미 있는 장소다. 철거를 앞두고 주민들이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독방 체험 등 교도소 견학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법질서 지키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리라 본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준 법무부와 LH에 감사드린다."

-교도소 부지 개발 일정은

"현재 땅 주인인 LH와 사업개발 시행자인 PFV비채누리개발이 토지 가격에 대한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산이 끝나면 이달 중으로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며 3년여의 공사를 거쳐 2017년 새롭게 조성된 복합단지를 만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 고척동에는 돔구장도 건설되고 있어 이 일대가 구로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거 후 주거·상업·행정 복합단지로 개발

이번 행사가 끝나면 교도소 부지는 주거·상업·행정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탈바꿈된다.

복합개발부지(4만5887㎡)와 공동주택부지(2만8352㎡)에는 23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전략적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복합공공청사부지(4950㎡)에는 보건지소·구로세무소·구로구시설관리공단·보육시설 등 구로 제2행정타운이 조성된다. 도로(1만5191㎡), 공원(7191㎡) 등 기반시설과 염대신업시설(3516㎡)도 갖춰진다.

개발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영등포교도소는 구로구 한복판인 고척동에 위치해 주거 환경과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교도소를 둘러싸고 들어선 아파트 주민들은 끊임없이 이전을 요구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수십년에 걸쳐 서울시 인근 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님비현상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결국 관내 외곽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해법을 찾았다.

구는 법무부와 논의를 거쳐 천왕동에 교정시설을 신축, 기존 고척동 교정시설과 상호 교환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천왕동 교정시설 토지 보상과 신축 등 이전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와도 협약을 맺었다. LH가 이전 사업비를 부담하고,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부지의 소유권을 얻어 개발하기로 위약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고도 제한의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지역 고도 제한(해발 82m)으로 45층 아파트 건립이 어려웠으나, 구 관계자들의 노력과 서울시 공공 건축가의 참여로 건축물의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건립이 가능해졌다.

2014 고졸 인재 잡 콘서트 참가

방통대 선취업 후진학 안내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2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14 대한민국 고졸 인재 잡 콘서트'에 참가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잡 콘서트'는 고졸 인재에 대한 채용 문화를 정착하고 올바른 채용 정보 전달과 실질적 취업 지원, 시간제 일자리 및 경력단절 여성 채용 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의 주최로 110여 개 기업과 10여 개의 대학이 참여한다.

방송대는 2014학년도 2학기 대학 입시 일정은 물론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선취업 후진학'에 대한 정보 및 마이스터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 입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또 잡콘서트에 함께 참가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프라임칼리지 선취업 후진학 과정의 신설 학부와 기업 관련 혜택 등도 소개한다.

창립일 맞아 사회공헌활동 전개

코이카 임직원 60여명

정부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는 1일 창립 23주년을 맞아 창립기념식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코이카 임직원들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 나눔! 코이카 도시락' , 라면과 생필품을 성남시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했으며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

이날 사회공헌활동에는 김영목 코이카 이사장, 김수은 수정노인종합복지관장, 김광일 분도 본부직판2팀장, 윙크 코이카 홍보대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여객기 마지막 교신 내용 번복 논란

말레이시아 교통부… 블랙박스 회수 힘들듯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지상과 마지막으로 교신한 내용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여객기가 실종 직전 마지막으로 지상 관제탑에 보낸 교신이 '좋은 밤 말레이시안 370(Good night Malaysian three seven zero)'이었다고 밝혔다. 당국이 앞서 전한 "다 괜찮다. 좋은 밤(All right, good night)"과는 다른 내용이다.

교통부는 실종 여객기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을 바꿔 혼선을 빚었다. 마지막 교신 내용과 관련해 당국이 또다시 기존 발표를 번복하자 탑승객 가족들은 사고 처리 미숙을 지적하며 격분했다.

BBC는 새로 알려진 교신 내용에 대해 "'좋은 밤 말레이시안 370'이 앞서 나온 '다 괜찮다. 좋은 밤'보다 격식을 차린 대화이며 조종사가 지상과 교신할 때 더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지막 교신 내용이 왜 실제와 다르게 알려졌고 뒤늦게 번복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한편 실종 여객기 수색이 25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블랙박스 작동 시한인 한 달이 다가오면서 블랙박스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은 현재 진행 중인 남인도양 수색에서 잔해가 발견돼도 블랙박스 신호를 포착, 이를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미국 해군의 블랙박스 탐지장비를 싣고 지난달 31일 서호주 퍼스를 출발한 호주 해군은 3일께 수색 해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신호 발신기의 전지는 사고 후 30일이 수명이지만 발신기 제조업체는 30일 후에도 5일 정도는 약한 신호를 계속 발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수색팀은 주변 온도 등의 변수를 고려해 블랙박스 신호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을 12일께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미기자 soonm@metroseoul.co.kr

훌리건 규탄 집회 사망자 추모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페인 남부 빌바오에서 훌리건 극성 축구 팬의 폭력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 시민들이 축구 유니폼 위에 촛불을 올려두고 전날 숨진 한 남성을 추모하고 있다. 스페인 축구리그 개막전인 지난달 30일 빌바오리에서 40대 남성이 상대팀 팬과 다투다가 숨기어 맞아 사망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저커버그 연봉 1달러 대열 합류

경호·여행비용도 크게 줄여

세계적인 갑부 마크 저커버그(사진)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연봉 1달러 대열에 합류해 화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커버그의 지난해 연봉은 1(약 106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50만3205달러(약 5억3500만원)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50만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다만 저커버그는 연봉과는 별개로 경호나 개인 여행 등에 드는 비용은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전 액수는 2012년 199만 달러(약 21억1500만원)에서 지난해 65만3165달러(약 6억9400만원)로 대폭 줄었다.

이에 대해 CNN 등 외신들은 경영자가 주식으로 억만장자가 될 경우 스스로 연봉을 삭감하는 미국 정보기술(IT) 업계의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스티브 잡스 전 애플 공동창업자는 1997년부터 2011년 사망할 때까지 매년 연봉 1달러만 받았다. 보너스도 전혀 받지 않았다.

구글의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지난 2004년 구글의 기업공개(IPO) 이후 줄곧 1달러의 연봉만 받고 있다.

/미국뉴욕기자 ljm.co.kr

시진핑 "EU와 좋은 친구 되겠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금상첨화(錦上添花) 등의 성어를 써가며 유럽연합(EU)에 진정한 친구가 되자고 손을 내밀었다.

1일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전날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를 방문, 마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과 만나 "중국의 대유럽 정책은 일관적"이라면서 "우리는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을 더하고(금상첨화), 급히 필요할 때 필요한 도움을 줄 것(설중송탄)"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EU 측이 중국의 평화 발전을 더 잘 이해하고 지지해주길 바란다"면서 "중국과 EU가 서로 신뢰하고 공동 발전하는 좋은 친구, 진정한 친구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슐츠 의장도 "중국은 위대한 국가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자"고 화답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유럽 순방에 나선 시 주석은 네덜란드와 프랑스, 독일, 벨기에를 방문한 뒤 이날 귀국길에 올랐다. /조선미기자

미스유니버스에 '악마 의상'

metro Nicaragua

참가대표 전통 옷 비난 여론

polémico traje del "diablo" no … a Miss Universo 2014

전 세계 대표 미녀를 뽑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앞두고 최근 중남미의 소국 니카라과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니카라과 대표에게 입힐 전통 의상이 '악마 의상'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는 각국의 미녀들이 자국을 대표하는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르는 행사가 있다. 미녀들은 깃털로 장식하거나 우아한 소재로 한껏 멋을 낸 옷을 입고 자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올해 니카라과 대표가 입을 옷으로 선정된 것은 다름아닌 디아블로 의상. 이른바 악마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한 것이다.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제작된 이 옷에는 악마를 상징하는 날개와 투구도 달려있다.

이 옷이 니카라과를 대표하는 의상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대표 미녀에게 어떻게 이런 흉측한 옷을 입혀 세계 무대로 내보낼 수 있느냐"며 격분했다.

결국 지난달 27일 디아블로 의상을 제작한 디자이너 네프탈리 에스피노사는 "이 옷은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출품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 작품에 대한 논쟁이 끝나길 바란다"면서 "니카라과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대회에 이런 작품을 내보고 싶었다. 일종의 모험이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의상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높은 점수를 받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카를 엑스피노사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침을 이용해 비만원인 분석 '주목'

metro France

Obésite : une étude av…

프랑스국립과학연구센터(CNRS)에서 타액(침)을 이용해 비만의 원인을 분석했다.

비만의 주요 원인으로 보통 영양 섭취 불균형과 운동 부족을 꼽는다. 하지만 유전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RS에 따르면 고도비만의 약 5%는 식욕을 조절하는 인자에 문제가 있어 이것이 비만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타액이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식욕을 조절하는 인자가 침의 성분인 효소 및 아밀라아제를 만들어내고 이 성분들이 전분 관련 식품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맡기 때문.

연구진들은 유전자의 부족으로 효소와 아밀라아제가 부족할 경우 비만 위험성이 10배로 뛰어오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전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비만 확률이 적어도 20% 이상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걸베살드가 브리송 기자
·정리=정주희 인턴기자

한 달 3차례 복권당첨 '화제'

미국인 부부가 한 달에 3차례나 복권에 당첨됐다고 1일 현지 언론이 전했다.

행운의 주인공은 버지니아주에 사는 엘런 스펜서 부부. 당첨금은 총 205만 달러(약 21억7000만원)다.

스펜서 부부는 지난달 12일 파워볼 복권에 당첨돼 100만 달러를 받았다. 지난달 26일에는 픽보 복권에서 숫자를 모두 맞춰 5만 달러를 챙겼다. 다음날 스펜서 부부는 즉석복권을 구입, 100만 달러에 또 당첨됐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일>

코스피 1991.98 (+6.37)
코스닥 549.08 (+7.50)
금리 2.87 (변동 없음)
환율 1058.00 (-4.50)

뉴스 & 뉴스

월세 1년전 대비 1.7% 하락

● 고공 행진을 벌이는 전세 시장과는 달리 월세 시장은 1년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8개 시·도 월세 가격이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고 1일 밝혔다. 작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 내린 것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7% 빠졌다.

감정원은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부진한 데다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임대소득 과세 방침의 영향으로 월세 가격이 약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0.3%), 경기(-0.2%), 인천(-0.1%)이 모두 하락해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0.02% 떨어졌고, 지방광역시는 전월 하락에서 보합으로 돌아섰다. /박선옥기자

SKB '집전화 무제한' 출시

● SK브로드밴드는 최저 월 2000원에 자사 가입자 간 무제한, 타사 가입자와는 월 최대 5000분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집전화 무제한' 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집전화를 매일 시내·외 각각 15분, 30분 이용할 때 표준 요금 대비 85% 절약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은 SK브로드밴드의 유선 전화,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3개 상품 모두를 3년 약정으로 가입해야 가능하다. /서승희기자

다음 스토리볼 '무빙툰' 첫선

● 포털 다음은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인 '스토리볼'(http://storyball.daum.net)에서 '연화속세상'에서 인기리에 연재된 잠작 작가의 웹툰 '0.0MHz'를 1일부터 한 달간 '무빙툰' 형태로 방영한다.

무빙툰은 웹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재탄생시킨 콘텐츠 장르다. 이번에 처음으로 방영되는 무빙툰 '0.0MHz'는 기위에 눌리거나 귀신을 보는 등 각종 심령 현상을 겪는 카페 동호회 회원들이 한 흉가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포물이다. /박성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27(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8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광현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254-9100
독자센터 02)721-9785

KB·농협카드 17만5000명 정보 추가 유출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에서 식별정보 등 17만5000여 명의 고객 정보가 추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를 대상으로 2차 유출 정황 등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월 1차 유출 내역과 비교해 국민카드에서 가맹점주 14만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명 등이 새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농협카드에서는 기존 유출 고객 3만5000명의 피해 항목이 더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카드에서 새로 유출된 고객은 가맹점주들로 이름, 전화번호 등 단순 식별정보였으며 농협카드는 기존 유출 항목보다 2~3개씩 늘었으나 카드유효기간이나 비밀번호 등 민감한 항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기자 hjkim1@

회사 적자여도 오너 연봉 수십억

GS그룹 허창수·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거액 보수 논란

샐러리맨에 비해 최소 20배에서 40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 기업 경영자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회사가 대규모 적자 상태에 빠져있거나 유동성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경영자들은 '돈잔치'를 벌여 모럴해저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회사들의 경우 올해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도 적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GS그룹 회장으로 현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적자 상태에 놓인 회사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허창수 회장의 경우 GS그룹의 주력 계열사 중 하나인 GS건설로부터 지난해 17억2000만원의 연봉을 챙긴 것을 포함해 계열사로부터 총 연봉 38억9200만원을 챙겼다.

또 허준구 명예회장의 4남인 허명수 GS건설 사장도 지난해 5억7900만원의 급여와 상여금 5600만원 등 총 6억3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GS건설은 지난해 매출 9조5815억원에 영업손실 9373억원, 당기순손실 7721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GS건설은 올해 실적 저조를 이유로 주주들에 대한 배당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도 427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서 42억원의 연봉을 챙겼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342억원으로, 전년보다 40.0%나 줄어든 상태다. 매출도 5조1321억원으로 12.8% 줄었고 순손실도 496억원의 적자를 냈다.

배당은 보통주 1주당 1500원으로 정했다.

또 유동성 위기를 겪는 동부그룹의 김준기 회장과 장남인 김남호 동부제철 부장도 배당금과 연봉을 합쳐 수십억원대를 벌어들였다.

김남호 부장은 94억1000만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72억2000만원을 지난해 벌어들였다.

동부그룹은 올해 내 2조원가량의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기존에 발표한 자구 계획의 지연 및 축소 가능성으로 연쇄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정당하게 실적을 내서 대가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오너가들이 샐러리맨에 비해 수십배 많은 연봉을 챙겨가는 상황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재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균기자 ksu1@metroseoul.co.kr

지리산서 홍삼 먹고 자란 닭 1일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지리산 천혜의 녹가에서 홍삼을 먹고 자란 하림 '지리산 참(眞) 홍삼토종닭'을 선보이고 있다. /하림 제공

2분기 맑음… 경기전망지수 110

2분기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전망지수가 11분기 만에 최고치인 110을 기록, 기업들은 향후 경기가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업종별로는 조사 대상 전 업종에서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반도체(137), 기계 및 장비(117), 비금속, 석유정제(114) 분야의 호조가 기대된다. 부문별로는 매출(114), 내수(113), 수출(106)은 개선이 예상되고, 경상이익(98)은 1분기보다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들의 지난 1분기 경기 실적 체감을 나타내는 시황지수(94)는 기준치(100)를 하회,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유주영기자 boa@

"신뢰받는 중앙은행 만들것"

이주열 한은 총재 취임 당분간 금리 안 올릴듯

이주열 총재가 1일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5대 한국은행 총재로 취임한 이주열 신임 총재가 1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앙은행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 운용과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한국은행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앙은행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리 정책에 대해선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의 잠재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고, 경기 회복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조직·인사 관리와 관련해 "한행 경영 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수행 방식의 효율성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내부 경영 부문에서 이뤄진 다양한 개혁 조치 가운데 긍정적인 면은 발전시키겠다"면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을 드러낸 조치는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인사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쌓아온 실적과 평판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면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다양성과 개방성도 꾸준히 추구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 총재 교체에도 당분간 통화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증권 권영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위험이 모두 없으므로 새 총재가 이끄는 한은에 상당한 정책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기준금리 2.50%는 이미 경기 부양적"이라고 진단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도 "경제 평가에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 지난달 금통위 결정이 유지될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인상되는 시점은 올 4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지기자 minji@

우리은행 미술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미술·클래식 영재 키우는 은행

우리·신한 하나금융 꾸준한 메세나 운동 '감동'

그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하는 등 재정대다는 인상이 강했던 금융기관이 '따뜻한 금융'으로 변신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메세나 운동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66년 미국 체이스맨해튼 은행의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록펠러가 기업의 사회공헌 이익 일부를 문화·예술 활동에 할당하고자 건의했던 '메세나'가 은행권에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우리은행은 '꿈 그리고 축제'를 주제로 '제20회 우리미술대회'를 개최한다.

1995년 초대 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총 인원 70만여 명이 참가했던 '우리미술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술을 통해 꿈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특히 오는 5월 17일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에는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어린이 50여 명도 초청해 문화 나눔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국내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하는 '신한음악상'을 연다.

올해로 6번째 열리는 신한음악상은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한 음악상으로 순수 국내파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신한은행의 메세나 사업 중 하나다.

시행 첫해는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 피아니스트 김규연, 바리톤 김주택과 오보이스트 조은영 등 4명의 차세대 음악가들을 수상자로 배출하기도 했다.

오는 4월 2일까지 접수 가능한 신한음악상은 해외 정규 음악교육 경험이 없는 1996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첼로 등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하나금융 역시 클래식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0년부터 클래식 연주와 음악감독의 해설이 어우러진 연주회식 강좌 '하나 클래식아카데미'와 서울시립교향악단 후원을 통한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정명훈 예술감독 지휘의 '하나 클래식 시리즈'의 타이틀 스폰서로서 공연을 함께한다.

한국메세나협회 관계자는 "그간 기업 공헌활동이라고 하면 단순 공연 관람이나 일회성 봉사에 그쳤다면 최근 몇 년간은 장기적 관점에서 공헌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며 "모든 양식이 기업들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이나 예술인과의 일대일 맺음 지원 등 해당 기업체의 비즈니스 역량에 맞는 방안을 차잠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sj·ve@

상장사 21곳 퇴출 위기

STX조선 상폐 확정… 벽산·동양건설 10일까지 시한부

국내 주식시장에서 21개 상장사가 퇴출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2013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감사 결과 유가증권시장 10개사, 코스닥 시장 11개사 등 총 21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 중 외국법인 등을 제외하고 유가증권시장 729개사와 코스닥 시장 971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접수해 심사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STX조선해양과 외안자산관리 등 2곳은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양건설과 벽산건설은 오는 10일까지 제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수순에 돌입한다.

현대시멘트와 STX, STX엔진, 동양, 동양네트웍스 등 5곳은 자본전액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로케트전기는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예고됐으므로 상장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사유별로는 자본잠식 50% 이상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감사의견 관련(4곳), 자본금 전액잠식 및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1곳), 2년 연속 주식분산요건 미달 1곳이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티이씨코, 현대시멘트, 유니켐, 로케트전기, STX, STX엔진, STX중공업, 신우 등 8곳을 관리 종목으로 새로 지정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지난달 27일 상장폐지된 엠텍비젼을 포함해 11곳이다. 이 중에서 오리스와 태산엘시디, 쌍용건설은 자본전액잠식으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엠켐텍은 감사 의견 '부적정'으로 이의 신청 중이다.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에버테크노와 아라온테크, 유니드코리아, 디지텍시스템은 사유 해소 입증 서류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디브이에스코리아와 AJS는 10일까지 이를 접수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 법인은 2012년 21개사에서 절반(48%)가량 감소했다.

특히 감사 의견 비적정 법인의 수가 5곳으로 전년 17곳에서 71% 크게 줄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는 기타 손상차손 50% 이상인 질레이위드와 자본전액잠식 해소를 자구 이행한 오성엘에스티 등 2곳이 검토됐다.

관리 종목 신규 지정 법인은 15곳으로 전년 17곳과 비슷했지만 이날 현재 관리 종목은 33곳으로 전년보다 20%(8곳) 줄었다.

새로 관리 종목이 된 곳으로는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스포츠서울, 에듀박스, 터보테크, 에버테크노, 와이즈파워 등 8곳과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대성엘텍·케이디씨(2곳), ▲4사업연도(2010~2013년) 영업손실을 기록한 유니슨·피에스앤지·피앤텔·자연과환경·CU전자(5곳) 등이다.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는 에버테크노와 정원엔시스, 아라온테크, 다스텍 등 8곳이 새로 지정되면서 총 16곳으로 늘었다.

아이티엔은 내부 회계관리 제도 비적정 사유가 해소돼 지난달 20일 투자 주의·환기 종목에서 지정 해제됐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은행예금 가계비중 50% 돌파

은행 예금 가운데 가계 비중이 6년여 만에 5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국내 예금은행의 총 예금 1008조9300억원 가운데 가계의 예금은 약 507조2100억원으로 50.3%를 차지했다.

가계 예금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지난 2007년 10월(50.6%) 이후 처음이다.

가계 예금 비중은 2001년까지만 해도 은행 전체 예금의 60% 수준을 넘나들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1년에는 4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펀드와 저축성 보험 등 새로운 금융 상품이 생기고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가계와 기업의 예금 추이를 보면 입출식 예금과 예·적금 모두 가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가계의 저축성 예금은 지난해 말 현재 459조7400억원으로 2012년 말(435조9300억원)보다 23조8100억원(5.5%) 증가해 기업의 저축성 예금 증가세(1.8%)를 앞질렀다.

지난해 말 가계의 요구불예금도 41조9600억원으로 전년(34조8600억원)보다 7조1000억원(20.3%) 급증해 기업의 요구불예금 증가세(7.3%)를 크게 웃돌았다.

/김민지기자 ma…

피아트 '친퀘첸토 이탈리아' 한정판 출시 | 피아트 크라이슬러 코리아가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 이탈리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한 '친퀘첸토 이탈리아'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증권 나란히 3%대 상승 기지개

새봄을 맞아 그동안 움츠렸던 금융주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켜며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주·증권주는 각각 3.6%, 3.5% 상승하며 코스피 평균 상승률을 앞질렀다.

은행업권은 2월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가 전월 대비 1bp 상승하며 은행 순이자마진(NIM)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2월 말 원화 대출채권 잔액도 가계대출, 기업대출 증대 가세에 힘입어 전월 대비 0.53% 늘었다.

2014년에는 중기대출 중심 성장에 따른 대출자산 증대와 순이자마진 개선이 은행주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일 전망이다.

증권업 또한 오랜만에 지표 개선을 맞봤다. 신용 잔고 4조7400억원으로 지난 2013년 6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 잔고 증가는 개인 비중 및 시가총액 회전율 상승으로 이어지며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특히 시중자금 단기 부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저금리로 안전자산 매력도가 낮아졌다는 점에서 8%를 상회하는 수익률 스프레드 등 주식자산의 높은 투자 매력도를 반영한 부동자금의 이동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에 악재를 이미 반영한 증권주 밸류에이션을 감안하고 이익 회복, 비용 통제, 업계 구조조정 등은 추가적인 조치로 해 증권업계가 그동안의 길었던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박상현기자 …

애물단지된 '누더기 캐슬'

신정뉴타운 롯데건설 단지 9000만원 추가 분담금 이어 싸구려 마감·불법시공 문제

서울 양천구 신월 신정뉴타운 1-4구역이 세대당 최고 9000만원에 이르는 추가 분담금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절반이 넘는 조합원이 조합장과 조합 임원의 비리를 확신하고 이로 인해 '누더기판' 캐슬 인부실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입주 3개월 앞두고 "150억 내라"

지난달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월 2일 입주를 시작한 신월 신정1-4구역의 내부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다. 뒤늦게 발견한 추가 분담금이라는 암초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해 10월 31일 총회에서 조합이 사업비가 150억이 넘어 증가됐다며 조합원 1인당 1000만~9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통보했다.

이에 입주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조합에 반대하는 '권리찾기모임'이 만들어졌다.

최용진 권리찾기모임 대변인은 "추가 분담금 내역을 보면 이미 5년 전에 다 끝난 설계와 철거 비용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고, 시공사인 롯데건설에서 해야 하는 조경공사는 다른 업체에 돈을 주고 맡긴 것으로 돼 있는 등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사무실을 계속한 데다 전화 통화에도 응하지 않았다.

◆주차장 물 새고 벽에는 금 쩍

이런 논리들에 이르드라고 제대로 지어질리가 없다. 조합원들은 3.3㎡당 1500만여 원에 이르는 '성(城)'이라는 브랜드의 롯데캐슬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싸구려 마감재와 불법 부실 시공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 전대훈(51)씨는 "TV쇼 진품명품에 마감재를 들고 나가고 싶을 만큼 오래된 마감재들이 3.3㎡당 1500만원대의 아파트에 쓰였다"며 "시공 자재들이 입찰 당시 제안됐던 것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벽지 장판 등이 들뜨는 등 공사도 제대로 안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큰 문제는 건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불법 부실 시공이다. 권리찾기모임 최 대변인은 "조합원 중 배관·전기 등을 잘 아는 사업가, 감리사 등이 모여 지하주차장만 둘러봤는데도 220곳의 불법 부실 시공을 찾았다"며 "비가 오지 않는 데도 벽에서 물이 새는 곳이 100곳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추가 분담금과 부실 시공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신월 신정1-4구역은 우선 추가 분담금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주민 간 갈등을 촉발한 작년 10월 31일 총회에 대해 효력가처분 소송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3월 1일 조합원 533명의 동의를 얻어 기존 조합의 임원 해임 건을 가결했지만 아직 새 조합을 만들지 못해 구 조합에서 아직 업무 처리를 하는 실정이다.

최용진 권리찾기모임 대변인은 "하루빨리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구 조합과 롯데건설에 우리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owen9208@metroseoul.co.kr

신정뉴타운 롯데캐슬 주차장 천장에서 비도 오지 않았는데 물이 새고 있다. /권리찾기모임 제공

女 취업비중 OECD 꼴찌 수준

한국, 34개국 중 29위

우리나라 여성 취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5세 이상 취업자 2507만 명 가운데 여성은 1045만 명으로 41.86%에 달했다. 이 수치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9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OECD 평균치 44.01%에 못 미쳤다. 우리나라보다 여성 취업자 비중이 낮은 곳은 터키와 멕시코, 그리스, 칠레, 이탈리아밖에 없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자 비중은 전년 41.71%보다 0.15%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여성의 사회진출 및 경력 단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드러냈다.

한편 여성 취업자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북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로 49.34%에 달했다.

/박은희기자 (eunju@)

▶ OECD 34개국 여성 취업자 비중

순위	국가	비중
1	에스토니아	49.34%
2	핀란드	48.88%
3	아이슬란드	47.92%
28	일본	42.60%
29	한국	41.86%
34	터키	29.94%

/OECD 자료

코스피사 순익 절반 삼성전자 차지

지난해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순이익이 유가증권시장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13년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28조6927억원, 36조785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3.7%, 26.6% 증가했다.

이 기간 삼성전자의 순익은 30조47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8% 늘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494곳의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812조8829억원, 100조9902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6%, 36.48%를 점했다.

특히 세금과 이자 등을 제한 최종 수익인 순익 부문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커졌다.

지난해 삼성전자 순익은 전년보다 27.8% 증가한 30조47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장사 전체 순이익(61조7467억원)의 무려 49.4%에 달한다.

/문형철기자 bluekim@

휴대폰 정 떨어지는 이유
통신장애<정보유출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통신 장애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더 반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올해 우리나라 이동통신 서비스 30주년을 맞아 전국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먼저 현재 가입한 이동통신사 서비스 만족도 항목에서 소비자들은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다'(45.1%)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만족'은 37.2%, '불만족' 17.6% 순이었다.

통신 3사 만족도는 SK텔레콤(40.3%), LG유플러스(39.1%), KT(31.9%)로 나타났다. 불만족도는 KT(19.2%), LG유플러스(17.7%), SK텔레콤(15.9%)이었으며 홈페이지 해킹 사건으로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KT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판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흥미로운 점은 설문조사가 진행되기 직전 SK텔레콤이 대규모 통신 장애를 일으켰음에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이다.

리서치뷰 측은 "이동통신 이용자들은 통신 장애보다 고객정보 유출을 더 비판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정윤희기자

단체 셀카 '위피'도 잘 찍는 NX미니 삼성전자는 1일 얇고 가벼운 미러리스 스마트 카메라 NX미니를 국내시장에 출시했다. NX미니는 두께 22.5㎜, 본체 무게 158g이며, 회전식 화면과 스마트 공유 기능을 통해 흔히 '셀카' 또는 '셀피(Selfie)'라고 불리는 개인 자가 촬영뿐 아니라 '위피(Wefie)'로 불리는 단체 자가 촬영도 가능하다. /삼성전자 제공

'자동차의 바다' 전세계서 200대 출동

다음달 29일 부산국제모터쇼 개막… 완성차 21개 브랜드 참가

'자동차의 바다, 세계를 품다(Ocean of Vehicles, Feeding the World)'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4 부산국제모터쇼가 오는 5월 29일 프레스데이, 30일 개막식 행사를 시작으로 6월 8일까지 11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부산시와 벡스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 6개 주최·주관기관이 1일 서울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수도권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4 부산국제모터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014 부산국제모터쇼는 전년도 행사에 비해 약 54% 증가한 4만6380㎡의 실내 전시장에서 국내외 완성차 21개 브랜드, 부품 및 용품 등 200여 개가 참가해 200여 대의 최신 차량을 전시할 예정이다.

국내 참가 업체로는 현대, 기아, 쉐보레(한국GM), 르노삼성 등 승용차 4개 브랜드를 비롯해 현대상용, 기아상용 등 2개의 상용차 브랜드 등 총 6개 브랜드가 참가한다. 쌍용차는 전시장 위치 배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완성 자동차 업체는 아우디, BMW, 캐딜락, 포드, 인피니티, 재규어, 랜드로버, 렉서스, 링컨, 마세라티, 메르세데스 벤츠, 미니, 닛산, 토요타, 폭스바겐 등 11개사 15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올해 행사는 미래형 콘셉트카 9대와 세계에서 첫선을 보이는 월드 프리미어 3대, 아시아 프리미어 5대, 코리아 프리미어 20대 등을 대거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가 세계에서 첫선을 보이는 월드 프리미어카 3대를 준비 중인 것을 비롯해 다른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아시아 프리미어 2대, 코리아 프리미어 4대 이상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에 연고를 둔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 지난 2012년도에 비해 두 배가 늘어난 전시부스에서 콘셉트카와 전기차를 바탕으로 다양한 차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맞서 해외 자동차 브랜드들도 영남권 시장을 겨냥해 부스 규모를 대거 확대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BMW가 지난 2012년도 행사에 비해 전시면적을 두 배가량 늘린 것을 비롯해 포드, 닛산, 토요타, 메르세데스 벤츠, 마세라티 등도 부스 규모를 크게 늘렸다. 재규어와 랜드로버의 경우 지난 2008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2014 부산국제모터쇼를 참가해 적극적인 홍보를 준비 중이다. 이들 외국 자동차 업체들도 남부권 시장을 겨냥해 아시아 프리미어 2대, 코리아 프리미어 15대 이상 등 최신 자동차 모델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2014 부산국제모터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동남권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부품전시회와 무역상담회인데, 올해는 자동차부품전시장을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신관 3층 전시장에 마련되는 '오일프리 드라이빙 체험 존'에서는 모터쇼에 참가한 완성차 브랜드들과 연계해 내방객들에게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들을 직접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골프존 새 성장 동력 '게임'

자회사 '골프 엔터테인먼트' 분사… 제2신화 도전

김영찬(사진) 골프존 회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게임을 선택했다.

김 회장은 2000억원대 자산을 지닌 자수성가 최고경영자(CEO)의 대표 인물로 게임 사업을 발판으로 제2의 골프존 신화에 도전한다.

골프존은 1일 자사의 G&E(Game & Entertainment) 본부를 100% 자회사 방식으로 분사시킨다고 밝혔다.

사명은 '골프존 엔터테인먼트'. 이미 기존에 축적된 기술력을 발판으로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대한 사업 확대에 주력해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골프존 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모바일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체험형 하이브리드 게임 등의 게임 사업과 캐릭터, 테마파크 사업 등 문화 콘텐츠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골프존 엔터테인먼트 김효겸 대표이사는 "게임 사업을 시작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군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골프존 그룹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존 엔터테인먼트는 주요 라인업으로 온라인게임 '프로젝트 GG'를 네오위즈게임즈와 론칭할 계획이며, 2분기부터 자체 개발을 포함해 10여 종의 모바일게임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박상훈기자 [illegible]

LG유플 '게임 클라우드' 출시 중소 게임기업의 개발을 돕는 통합 솔루션 LG유플러스 직원들이 게임 클라우드 홍보이미지에서 구축 마법사를 이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게임 클라우드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제공

잡스-슈미트 '직원 빼가기 금지' 메일 눈길

슈미트: 귀사 직원을 스카우트해서 죄송합니다.

잡스: :)

고 스티브 잡스(사진 왼쪽) 애플 공동창업자가 직원 스카우트 금지 비밀협약과 관련해 에릭 슈미트(오른쪽) 구글 회장과 주고받은 e메일이 공개됐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1일(한국시간) 2007년 잡스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슈미트 회장이 주고받은 e메일이 노출돼 실리콘밸리 대표 기업의 잔혹하고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e메일은 잡스가 자사 직원에 대한 구글의 스카우트 시도를 슈미트 회장에게 항의하면서 오간 내용을 담고 있다.

잡스는 자신의 항의에 슈미트 회장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담당 직원을 해고키로 한 조치 내용을 알려오자 웃는 표정을 뜻하는 이모티콘 ':)'으로 응답해 직원 해고로 귀결된 소동에 대한 반응치고는 냉혹하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신문은 잡스가 기뻐한 이유가 담당자 해고 때문인지, 슈미트 회장의 사과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박상훈기자 [illegible]

kt오토리스 "상용차 리스 첫달 면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사회 전반의 불황으로 갈수록 고민이 깊어져 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지난해 7월 승합차나 경형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 리스 수요 고객을 대상으로 '상용차 리스 프로그램'을 출시한 kt금호렌터카(대표 표현명)의 자동차 금융 계열사 'kt오토리스'에서 첫 회 리스료를 면제해주는 '첫 달 면제 상용차 리스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상용차 리스 프로그램은 기존 수입차와 중대형 승용차 위주였던 리스 상품과 달리 생업을 위한 소상공인, 건설업 및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제성과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리스 상품이다. 2013년 7월 출시 이후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이벤트는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소상공인 등 상용차 리스 필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해당 리스차량에 kt오토리스의 홍보 스티커만 부착하면 첫 회 리스료를 면제해준다. 포터Ⅱ 기준으로 40만원, 코란도스포츠의 경우 54만7000원까지 리스료를 면제받게 된다(36개월, 연 4만km, 정비 포함 플러스 이용 기준). 상품 문의는 kt금호렌터카 콜센터(1588-1230)를 통해 가능하다. /김태균기자 [illegible]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 "대화·타협의 리더십" 강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일 "합의제 행정기구의 장으로서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2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노력을 꾸준히 했다"면서 "방송·통신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방송·통신 분야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재판, 관련 학회 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방송·통신의 기본 원칙과 사회적 경제적 영향, 공익적 산업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식견을 길렀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그는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통신 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원칙과 소신에 따라 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재영기자 [illegible]

연봉 0원 + 배당금 1079억… 소득 톱 이건희

CEO스코어 30대 그룹 조사

635억 정몽구 2위… 587억 최태원 3위 올라

지난해 연봉에 배당금을 합친 소득랭킹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연합뉴스

지난해 연봉에 배당금을 합친 소득 랭킹 '톱 3'는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순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2009년 경영 복귀 후 연봉을 한 푼도 받지 않지만, 배당금 1079억원만으로 지난해 재계 소득 랭킹 1위를 차지했다.

정 회장은 연봉 140억원에 배당금 495억원을 합친 소득이 635억원이었고, 최 회장은 연봉 301억원에 배당금 286억원을 합친 소득이 587억원이었다.

전문경영인으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과 신종균 사장이 '톱 30'에 이름을 올렸다.

1일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30대 그룹 대주주 일가의 주식을 보유한 임원 등 총 2742명의 연봉과 배당금을 합산한 연간 소득을 집계한 결과 삼성, 현대차, SK 등 '톱 3' 그룹 대주주 일가가 상위권에 포진했다.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신종균 사장은 60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아 전문경영인으로 유일하게 소득 톱 30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소득 1위를 차지한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 등 3개 지분 보유 계열사에서 1079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반면 연봉은 0원이었다.

2위인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 등 5개 계열사에서 495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여기에 현대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 등 3개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받은 연봉 140억원을 합산한 지난해 총 소득은 635억원이다.

3위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 SK·SK케미칼·SK C&C 등 4개 계열사에서 받은 배당금이 285억7000만원. 여기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SK이노베이션·SK하이닉스 등 4개 계열사로부터 받은 연봉 301억원을 합산하면 586억7000만원이다.

4위는 정몽구 회장 장남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다. 정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 등 3개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228억9100만원에 등기이사로 등재된 현대차·현대모비스 등 2개 계열사 연봉 24억3000만원을 합쳐 253억2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5위는 LG 구본무 회장으로 배당금 192억2000만원, 연봉 43억8000만원을 합쳐 소득이 236억원이었다. 이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배당금 67억9000만원+연봉 131억2000만원=199억1000만원), 이재현 CJ그룹 회장(118억3000만원+47억5000만원=165억8000만원),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배당금 154억9000만원), 정몽준 의원(현대중공업 배당금 154억4000만원), 구본준 LG전자 부회장(136억7000만원+12억7000만원=149억4000만원) 등이 지난해 소득 '톱 10'을 차지했다.

재계 소득 순위 '톱 30'을 그룹별로 보면 LG그룹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이 5명, SK 3명, 현대차, 롯데, 동부 등이 2명씩이었다. 미등기임원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연봉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배당금이 120억원에 달해 소득 11위에 올랐다.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115억4000만원), 허창수 GS그룹 회장(93억6900만원),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95억4000만원)이 12~14위를 기록했다.

김준기 동부 회장의 장남인 김남호 동부제철 부장(94억1000만원)을 비롯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90억5000만원), 이명희 신세계 회장(89억4000만원), 구본무 회장의 외아들인 구광모 LG전자 부장(85억6000만원),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75억8000만원), 구본식 희성전자 사장(78억3000만원) 등은 배당금만으로 7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며 20위권에 들었다. /안상미기자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K5 홈런존 기아자동차는 2014 프로야구 시즌 동안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K5 홈런존을 마련하고 홈런 이벤트 및 홈런볼 이벤트 등을 실시해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아자동차 제공

소비자 지갑 조금씩 열리나

2분기 소매유통 경기전망 전분기보다 9포인트 상승

◆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추이

2분기 국내 소비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활기를 띨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943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2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2분기 전망치가 113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분기보다 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1년도 3분기 이후 최고치다.

대한상의는 "최근 거시경제지표상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데다 지난 2012년도부터 시작된 영업 규제의 기저효과로 소비 시장이 본격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매 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유통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반대 의미다.

업태별로는 모든 업태가 기준치를 상회하며 실적 향상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홈쇼핑(126)이 1분기 대비 19포인트 상승하며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고, 이어 백화점(122), 대형마트(112), 인터넷 쇼핑몰(111)도 긍정적 전망을 보였다. 1분기 기준치 이하였던 편의점(104)과 슈퍼마켓(101)도 상승 반전하며 실적 개선이 예상됐다.

홈쇼핑(126)은 시청률이 감소하는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패션 상품군의 지속적 강화와 현방 시청을 대체하는 모바일 쇼핑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대되면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백화점(122)은 매장 리뉴얼에 대한 기대감과 2분기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로 봄 특수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112)는 저조했던 1분기에 대한 기저효과와 더불어 2분기 대대적 프로모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전할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쇼핑몰(111) 역시 경기 불황에 따른 저가 소비가 지속되며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편의점(104)은 공정위의 출점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적 특수로 1분기 대비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됐다. 반면 슈퍼마켓(101)은 기준치를 힘겹게 넘어섰으나, 정부 영업 규제 여파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2분기 예상되는 경영 애로 요인으로 유통업체들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부진'(32.8%)을 첫손에 꼽았고 이어 '수익성 하락'(19.1%), '업태 간 경쟁 심화'(11.3%), '업태 내 경쟁 심화'(9.8%), '유통 관련 규제 강화'(9.8%), '인력 부족'(6.6%), '상품가격 상승'(3.9%), '자금 사정 악화'(3.1%) 등을 차례로 꼽았다. (기타 3.6%)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소비심리 관련 경제지표의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들의 실적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동면(冬眠) 중인 소비심리에 봄바람이 불 수 있도록 가격할인 행사 등 기업 지원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30대 그룹 일자리 절반은 제조업

30대 그룹의 종업원 10명 중 5명이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도매 및 소매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에 각각 1명씩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이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OPNI)에 공개된 자산 순위 상위 30위 그룹의 5년간(2008~2012년) 종업원 수를 표준산업분류상 대·중 분류로 분석한 '30대 그룹 종업원 업종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30대 그룹의 총 종업원은 123만2238명이며, 제조업 65만976명(52.8%), 도매 및 소매업 13만6610명(11.1%),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12만8291명(10.4%), 건설업 6만943명(4.9%), 금융보험업 6만233명(4.9%) 등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종업원 수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84.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5.2%),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42.6%), 건설업(36.7%), 금융보험업(33.9%) 순이었다.

30대 그룹 종업원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제조업의 경우 5년 동안 종업원이 19.9%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제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5년 동안 6.2% 증가해 30대 그룹에 속한 제조업의 근로자 증가율이 임금근로자 중 제조업 근로자 증가율보다 13.7%포인트 높았다. /김수지기자

채용시장 헤매는 기업-구직자 자동 매칭

하반기 빅데이터 서비스 앞둔 취업포털 사람인 이정근 대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람인'을 자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 인사담당자라면 원하는 기업과 인재를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소비 취향과 관심사를 자동으로 파악해 상품을 추천해주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서비스를 사람인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서비스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취업 시장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쟁 업체보다 10여 년이나 늦게 시작했다는 약점을 극복하고 취업포털 사람인을 업계 리딩 컴퍼니 반열에 올려놓은 이정근 대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을 유독 강조했다. 업계에서 존경받는 진정한 리딩 컴퍼니가 되려면 매출·순이익 등 영업적인 성과는 물론 사회 공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서도 앞서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가 올 초 '매칭연구소'까지 설립하며 미스매칭 문제 해결에 매달리는 이유도 리딩 컴퍼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다.

"매칭 서비스는 방대한 자료에서 의미를 찾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정보를 수집·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매칭해야 한다는 얘기죠. 요즘 IT업계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험난한 과정인데도 이 대표의 자신감은 대단하다. 취업 업계가 온라인에만 주력할 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공채의 명가', '맞춤취업 사람인' 개발해 둥을 잇달아 선보이며 모바일 취업 시장을 개척했던 경험 덕분이다. 특히 올해 초 선보인 구직자별로 맞춤 채용 공고를 찾아주는 '아바타서치'와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주는 '인재 매칭' 서비스도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매칭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

이 같은 노력이 인정을 받으면서 사람인은 최근 '2014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에서 고용창출공헌 부문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히든스타'로 알짜기업 800개사 발굴

이 대표는 취업난에 힘겨워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도 쏟아냈다.

"조월·수시 채용 등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맞춤형 채용 전략만으로는 힘든 취업 관문을 넘어서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시각을 넓히고 정보 소스를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대기업·공기업 등에만 매달리지 말고 남부럽지 않은 연봉과 복지제도를 갖춘 알짜 중견·중소기업에 눈 돌려야 저고용 시대에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정근 사람인 대표가 사람과 일을 잇는 행복 브릿지 '사람인' 로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 대표는 조언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들을 위해 '히든스타 프로젝트'를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이미 800여 개사의 숨은 알짜기업을 발굴해냈다. 매출·연봉·복지 등의 기초 지표는 물론 선배들과의 인터뷰도 사람인 사이트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구직자들이 믿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대표의 충고는 중소기업에도 향했다. 대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취업난이 가중된 요즘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적기라는 지적이다.

"사람인의 채용 관리 서비스인 '등용문'과 전문 컨설팅 기관 제휴 등을 통해 제공 중인 인적성 검사 서비스 등을 활용한다면 체계적인 고용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도 손쉽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칭 서비스까지 시작되면 1년도 되지 않아 관두는 신입사원 때문에 골머리 썩는 일도 줄어들게 되죠.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를 귀화시켜 소치 동계올림픽의 영웅으로 재탄생시킨 러시아처럼 우리 기업들도 숨어있는 원석을 갈고닦아 보석으로 만드는 기쁨을 조만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서툰 손놀림 6시간만에 카드지갑 짠~

서승희 기자의 두잡 체험기

가죽공예 ②

첫 도전 과제는 카드지갑 만들기다.

재단에 앞서 유년 시절 미술 수업을 연상케 하는 자르기 연습에 들어갔다. 하얀 스케치북이 검정색으로 변할 때까지 선을 긋듯 가죽에 자를 대고 자르고 또 갈랐다. 칼도 갈았다. 솜씨 없는 목수가 연장 탓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뎌진 칼을 예리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사는 설명했다.

이제 본격적인 실습이다. 공방 한쪽에 놓인 가죽들 중 마음에 드는 고동색 가죽을 골랐다. 가위를 이용해 필요한 만큼의 가죽을 잘랐다. 능숙한 사람은 철자에 칼질만 하면 되지만 초보자인 기자는 펜으로 윤곽선을 그린 다음, 특수용 자의 뒤 아래에 고정 목적의 문진을 복지시킨 후에야 재단을 해낼 수 있었다.

다음 과정은 본딩이다. 바느질을 하기 전에 가죽을 임시로 접착하는 과정을 했다. 본드의 양이 과하면 가죽 사이로 본드가 분출해 지저분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본드와 본드가 만나는 부분을 망치를 이용해 압착을 했다.

이후 가죽을 눌러 기준선을 표시하는 도구인 디바이더로 바느질이 지나갈 선을 만들었고 그 선을 기준으로 그리프와 망치를 이용해 바늘이 통과할 공간을 만들었다. '포크'라는 뜻을 지닌 그리프는 가죽의 질기고 단단한 특성 때문에 가죽공예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다.

그다음은 바느질 작업이다. 천연사를 비즈왁스로 문질러 마찰력을 강하게 만든다. 170년 전 왕실에 마구(馬具)를 납품했던 말 안장 제작에는 방식인 새들스티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죽용 바늘이 2개가 필요하다. 바느질하는 구간의 대략 3배 반의 실을 바늘에 꿴다. 그러다 난관에 봉착했다. 얇은 실 사이를 바늘로 무려 세 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도통 감을 못 잡겠다. 우여곡절 끝에 바늘과 실을 연결시켰다. 이 부분을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며 강사는 예상한 듯 답변했다.

마지막은 칼로 자른 가죽 단면을 페인트 계열인 엣지코트로 마무리하는 작업이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카드지갑을 꼬박 6시간을 투자해 완성하니 감회가 새롭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늘 갖고 다니던 휴대전화 케이스와 카드지갑을 살펴본다. 바느질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뤄졌는지, 엣지코트가 매끄럽고 균등하게 발라졌는지 이전에는 신경도 안 썼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ssh@

혼밥·독강…'셀프 아웃사이더' 시대

대학생 47% 혼자 행동 경험

혼밥족(혼자 밥을 먹음), 독강족(홀로 강의를 들음).

대학가에 이 같은 '자발적 아웃사이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대학 이상 재학생 및 졸업된 구직자 390명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 중 아웃사이더 행동 여부'를 설문한 결과 47.7%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9.8%)이 '여성'(45.6%)보다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대학 내에서 했던 아웃사이더 행동으로는 '학과행사 불참'(59.7%, 복수 응답)이 가장 많았다. '홀로 강의 신청'(58.6%), '혼자 밥 먹음'(58.1%), '공강 시간에 도서관에서 홀로 보냄'(53.8%), '과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음'(46.2%), '동아리 가입 안 함'(37.1%), '밥만 같이 먹는 무리를 만듦'(10.2%), '수업 중 조별 과제 대신 개인 발표 진행'(10.2%) 등도 있었다.

그 이유로는 '불필요한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53.8%, 복수 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혼자서 행동하는 것이 더 편해서'(52.7%),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서'(41.9%), '사교성이 부족해서'(26.3%),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25.3%), '지출이 부담돼서'(23.1%), '취업에 집중하고 싶어서'(18.3%)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하지만 응답자의 72%는 아웃사이더 행동을 하며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자기소개서 등에 부각시킬 경험 부족 아쉬움'(45.5%,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흥미와 집중력 저하'(38.1%), '예민해짐'(30.6%), '내성적으로 변화'(27.6%), '취업 등에 대한 압박감 증폭'(23.9%) 등을 호소하는 대학생도 많았다.

/이국명기자

공기업 필기시험 비법서 '공기밥' 무료배포 합니다

공기업 인사의 최대 난코스인 필기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비법서가 나왔다.

1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상반기 공기업 채용을 대비 중인 신입 구직자들을 위한 '공기업 프리미엄 자료집-공기밥'을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네 파트로 구성된 '공기업 프리미엄 자료집-공기밥'은 공기업 채용 컨설턴트가 밝히는 필기시험 트렌드는 물론 주요 기업들의 필기시험 과목과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알려준다.

또 최근 열린 채용, 인문학적 역량 강화 등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공기업채용제도와 지방으로 이전할 예정인 공기업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필기시험 유형을 담아낸 기출 문제도 담겨있다.

인크루트 페이스북(www.facebook.com/incruit)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국명기자

입안에도 마음에도 힐링

조경 아름다운 호텔 봄나들이 떠나볼까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꽃이 만발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각양각색의 꽃들이 벌써부터 마음을 설레게 하는 지금 도심 속에서 산책과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호텔로 봄나들이를 떠나보자.

우선 탁 트여 있는 잔디광장과 호텔 건물을 둘러싼 산책로가 있는 더케이호텔서울은 따사로운 봄 햇살을 맞으며 꽃구경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특히 호텔과 연결된 양재천과 서초문화예술공원, 양재시민의 숲은 서울 내에서도 아름다운 벚꽃 길로 손꼽히는 장소다. 또 더케이호텔서울은 봄나들이에 나선 상춘객들의 무뎌진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신선한 봄나물과 유기농 재료로 풍성하게 구며진 오가닉 푸드 뷔페와 힐링룸 1박 등으로 구성된 '오가닉 라이프 패키지(Organic Life Package)'를 오는 13일까지 선보인다.

에어필드 호텔은 지난 40여년간 친환경을 모토로 가꿔온 조경 부지를 가진 호텔로 다양한 수목과 금낭화, 하늘매발톱, 원추리 등 70여 개의 한국 야생화 등 다양한 꽃들로 가득한 산책로로 유명하다. 게다가 산책로 주변으로 펼쳐진 천연 잔디 풋살 구장과 족구장, 호수 등에서는 가벼운 운동도 즐길 수 있으며 봄에 피는 꽃 화분 대여 서비스와 숙박이 가능해 봄날을 색다른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봄봄봄, 봄이 왔어요' 새봄 패키지도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JW 메리어트 호텔은 인근에 서리골 공원과 몽마르뜨 공원, 서리풀 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화창한 봄날을 만끽할 수 있는 호텔 중 하나다. 서래마을 카페 거리가 공원과 근접해 있어 여유로운 차 한 잔도 가능하고 토마토 모차렐라 샌드위치와 코코넛 주스 등의 피크닉 세트가 포함된 '그린 톡 패키지(Green tok package)'도 준비됐다. /황재용기자

뚜껑 열면 '5성급 런치'

호텔 '테이크 아웃 도시락' 화려한 메뉴로 입맛 유혹

봄을 맞이해 서울 시내 특급호텔들이 최고급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한 '테이크아웃 도시락'을 선보이고 있다. 한식·양식·일식 등 수준 높은 전통 요리는 물론 간편식으로 인기가 높은 샌드위치와 그루아상 등도 구비돼 있어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호텔 도시락 들고 봄나들이를 떠나보자.

먼저 세종호텔은 라운지&다이닝 베르디와 중식당 황궁에서 영양 만점의 도시락을 준비했다. 라운지&다이닝 베르디의 도시락은 안심 스테이크·불고기·연어구이·치킨스테이크 등 네 가지로 구성됐으며 황궁도 점심 및 석식 세트의 다양한 도시락을 마련했다.

밀레니엄 서울힐튼의 델리카트슨 실란트로 델리 역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샌드위치 세트(사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식당 겐지노 기호에 맞게 고를 수 있는 네 가지 종류의 '테이크아웃 런치박스 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또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의 일식당 슈마는 사시미 2종류를 포함해 숙주나물과 쇠고기 등심이 조화을 이룬 도시락 세트로, 그랜드 힐튼 서울의 일식당 미쯔모모는 생선회와 전복술찜 등으로 구성된 '벚꽃 도시락'으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임페리얼 팰리스 서울의 일식당 면요에서는 식상하지 않으면서 건강과 맛까지 겸비한 일식 메뉴의 도시락을 만날 수 있으며 롯데호텔서울에 위치한 델리카한스에서는 이른 아침 바쁜 시간에 쫓겨 아침을 거르는 많은 직장인들을 위한 '블랙퍼스트 투 고 박스'가 준비됐다.

이와 함께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아시안 라이브에서는 한국·중국·일본·인도 등 다양한 아시아 요리로 이뤄진 도시락을 맛볼 수 있으며 서울신라호텔 일식당 아리아께에서는 대표적인 일본 요리를 도시락으로 모두 즐길 수 있다.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의 로비라운지&델리도 싱그러운 봄나들이를 만끽할 수 있도록 샌드위치와 파이·쿠키·제철 과일 등이 포함된 '스프링 피크닉 박스'를 선보이며 콘래드 서울은 봄을 맞이해 '체리블로섬 스프링 피크닉 박스' 2종을 판매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베이징 달군 '보쌈 김치 퍼포먼스' 백석(사)오른쪽 둘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조리장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주중 한국문화원 7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국 전통 음식인 보쌈과 보쌈김치를 만들며 한식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행사는 한·중 양국의 주요 인사와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문화 공연, 그리고 한식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워커힐 호텔은 행사 기간 동안 리셉션 존을 설치해 명월관의 장원갈비 숯불구이 시간을 진행했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제공

'3대 진미' 케밥 한국스타일로

르네상스 서울 카페 엘리제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4월을 맞아 호텔의 뷔페식당 카페 엘리제에서 세계 3대 진미로 손꼽히는 '케밥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기존에 선보였던 터키식 케밥과는 달리 카페 엘리제의 케밥은 불고기 케밥, 갈비 케밥 등 한국 스타일로 새롭게 탄생돼 다양한 고객층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모션 기간은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런치타임은 정오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디너타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다.

가격(세금·봉사료 포함)은 주중 런치는 6만7000원, 주중 디너는 7만3000원이며 주말 및 공휴일 런치는 7만원, 디너의 경우는 7만4000원이다. /황재용기자

중년남성 힘 돋우는 '미스터10'

한국야쿠르트가 중년 남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남성 갱년기 제품 '미스터10'을 출시했다.

제품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활성화시켜 갱년기 남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다.

또 제품은 신체 능력 저하 및 성욕·성기능 개선 등 중년 남성의 기력 회복과 에너지 공급에 도움을 준다.

소비자가격은 9만8000원이며 한국야쿠르트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31일까지 제품을 8만90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품 구입은 야쿠르트 아줌마 또는 한국야쿠르트 온라인 쇼핑몰(www.vfood.co.kr)에서 할 수 있다. /정혜인기자

원조 '신의 물방울' 조지아 와인

서울 역삼역에 위치한 머큐어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 호텔이 개관 2주년을 기념해 최근 스카이라운지 클라우드에서 '조지아 와인 나잇'을 개최했다.

와인의 고향으로 불리는 조지아는 6000년이 넘는 와인 역사를 가진 세계 최초의 와인 생산국으로 우리나라 김장 김치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 땅에 묻은 항아리에서 와인을 발효시킨다.

조지아 와인나잇에서는 이렇게 제조된 다양한 와인뿐만 아니라 조지아 전통 음식과 바비큐가 제공됐다.

이와 함께 호텔은 이번 행사에 이어 조지아 와인과 조지아 전통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인 '조지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와인을 포함한 세트 메뉴 가격은 6만8000원이며 프로모션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또 호텔은 2층에 위치한 쏘도베 뉴욕 레스토랑에서도 세계 메뉴에 조지아 전통 음식 6종을 추가해 4월 한 달간 제공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스팀펑크 아트 패키지'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이 오는 30일까지 '스팀펑크 아트(Steampunk Art)전'을 즐길 수 있는 '스팀펑크 아트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는 안락한 객실 1박 숙박권과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스팀펑크 아트전 티켓 3매로 구성됐으며 호텔 수영장 및 피트니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스팀펑크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아날로그적 향수와 기계적 미학을 조화시킨 예술 장르로 이번 전시회는 펄사 프로젝트(Pulsar Project), 제임스 엥(James NG), 아트 도노반(Art Donovan) 등 세계적인 스팀펑크 아티스트들이 최초로 방한해 화제를 모았다. /김학철기자

향수 뜨는 이유 '바로 나'

패션보다 강렬하게 개성 표현…기억 자극·알람향기 등 시장 확대

향수가 여성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강력한 제품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론칭한 에스티로더그룹의 조말론부터 아모레퍼시픽이 인수한 아닉구딸, 신세계의 산타마리아노벨라 등 국내 기업과 손잡고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많은 해외 브랜드만 봐도 향수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영국 리서치 기관인 유로모니터는 우리나라 향수 시장 매출액 성장세가 2016년 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향수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는 향수가 다른 이와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류나 가방은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템에서 멀어졌고 향수가 어느 정도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선아 인터패션플래닝 수석연구원은 "뉴욕 아티스트 마르틴카 바프르지니아크(Martynka Wawrzyniak)는 자신의 겨드랑이, 머리 땀 등을 정제해 4가지 향을 추출하고 '스멜 미(Smell Me)'라는 이름의 전시를 열어 사람들이 자신의 향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며 "사람의 체취 또는 향기는 다른 이와 차별화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현대 소비자들에게 향수에 대한 투자는 당연한 것이 됐다"고 설명했다.

◆개인 지향적 향기로 변모

이런 소비 성향으로 인해 앞으로 향기와 관련된 산업이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매종 마탄 마르지엘라는 향수 '레플리카'를 출시하면서 향기가 개인의 기억·회상과 연결되는 방식에 대해 탐구하는 콘셉트쇼를 보여줬다. '플라워마켓' '정원에서의 산책' '유원지에서의 저녁' 등의 이름을 가진 이 향수 라인은 향이 개인적인 과거의 흔적을 상기시키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아티스트 아이센 카로 자신(Aisen Caro Chacun)은 시간을 숫자가 아닌 향기로 알려주는 시계를 선보였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커피 향, 점심에는 돈 냄새, 저녁에는 위스키 향, 밤에는 캐모마일 향이 나는 식이다. 시계 속에 있는 화학 물질이 독특한 향기를 만들어내 익숙한 향기와 기억이 겹치면서 시간을 순간의 향기로 대체시킨 것이다.

또 향초 시장을 주목해볼 필요도 있다. 향수가 타인에게 어필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향초는 개인의 정체성을 남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뿐 아니라 남이 보지 않는 공간에도 개인적인 삶을 꾸미는 도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혜인 기자 hue0408@metroseoul.co.kr

'SKT 약정할인액 130%' 11번가 포인트로

'T나는 쇼핑…' 이달 첫선

이동전화요금의 약정 할인 혜택을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이색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11번가를 통해 선보였다.

SK플래닛 오픈마켓 11번가는 유통업계 최초로 통신요금 약정 할인금액을 11번가 포인트로 지급하는 'T나는 쇼핑 포인트'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SK텔레콤 가입자 중 요금 약정 할인 혜택을 받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매월 약정 할인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11번가 포인트가 제공된다.

'T나는 쇼핑 포인트'는 가입 후 익월부터 매월 7일 휴대전화 약정 할인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11번가 포인트가 적립된다. 예를 들어 SKT 전국민 무한 69' 요금제 가입자가 T나는 쇼핑 포인트 전환 가입 시 요금 할인 금액 1만7500원의 130%에 해당하는 2만2750포인트가 자동 적립된다. 해당 포인트는 11번가에서 제한 없이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유효 기간은 적립일 기준 90일.

11번가는 T나는 쇼핑 포인트 론칭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한달 간 T나는 쇼핑 포인트 가입 고객 전원에게 1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만원을 할인받는 '대단한 50% 할인쿠폰'과 블랙박스, 미니벨로 자전거 등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대단한 기프트 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포핀 멘론 할인 이용권과 슈피겐 SGP 상품을 할인가에 구입할 수 있는 '11번가 프렌즈 기프트-예' 쿠폰을 제공한다.

11번가 박준영 마케팅실장은 "유통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T나는 쇼핑 포인트는 신개념 고객 혜택으로 신규 고객 유입과 거래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영일 기자 jyme@

꽃바지에 핑크재킷 '나도 남성복'

플라워패턴·파스텔컬러 '여성 패션 전유물' 옛말

패션과 외모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남성 '메트로섹슈얼족'이 증가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패션에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올 봄에는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플라워 패턴과 파스텔 컬러가 남성복에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눈에 띈다.

디자이너 김만주 아날도바시니 팀장은 "남성과 여성 간에 스타일의 경계가 사라진 지는 오래됐으나 일부 남성들은 아직도 옷을 고를 때 페미닌한 스타일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며 "톤 다운된 핑크 컬러나 옅은 플라워 프린트를 선택해 서서히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남성 캐주얼 브랜드 아날도바시니의 코럴핑크 재킷은 심플한 디테일에 톤 다운된 산호색을 사용해 데일리룩으로 부담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린넨 혼방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이 좋고 실용적이며 파스텔 색상의 셔츠니 니트를 함께 매치하면 댄디한 느낌의 오피스 웨어로도 연출할 수 있다.

한편 H&M의 리오셀 재킷은 플라워 프린트를 사용해 스포티하면서도 디테일을 살린 점업 재킷이다. 리오셀 소재로 촉감이 부드럽고 흡습성이 좋아 활동하기에 편하며 슬림핏의 데님팬츠나 블랙 팬츠를 함께 매치하면 세련미를 뽐낼 수 있는 아이템이다.

셔츠는 재킷 안에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연출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올봄 여름 시즌 유행할 블루 색상에 플라워 패턴이 가미된 셔츠는 화사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셔츠에는 청바지에 카디건을 함께 매치하면 감각적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학철 기자 kimc0604@

제주항공 中 7개도시 운항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대표 최규남)은 4월부터 인천, 부산, 제주를 기점으로 중국 7개 도시에 부정기 노선을 운항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인천공항에서 지지하얼 원저우·취안저우 등 3개 도시, 제주공항에서 공지우·시안·정두 등 3개 도시, 부산 김해공항에서 정저우행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지지하얼은 오는 24일부터, 원저우와 취안저우는 13일부터 운항에 돌입한다. 공지우는 제주공항에서 오는 11일부터, 시안은 9일부터 운항하고 쓰촨성의 성도인 청두는 1일 운항이 시작됐다. 부산 김해공항에서는 오는 10일부터 정저우행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김학철 기자 kimc0604@

JAL 페북 한국어 서비스

JAL 한국지점은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 공식 한국어 페이지를 개설하고 오는 25일까지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5일 서울~도쿄 노선 취항 50주년을 맞이하는 JAL 한국지점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한국인 고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생각, 캠페인 소개, 최신 서비스 및 상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JAL 페이스북 한국어 페이지(www.facebook.com/Japanairlines.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신화 기자 hkuna0404@

치즈5페라·갈비어부밥…메뉴명에 상상 돋네

외식업계가 최근 네이밍 마케팅을 앞세워 고객 시선 잡기에 한창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메뉴의 주재료나 콘셉트를 기발하게 풀어낸 펀트 같은 네이밍을 선호한다. 잘 지어진 메뉴명은 소비자들이 메뉴를 선택할 때 특징을 쉽게 알 수 있고, 위트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돕기 때문이다.

피자헛은 신제품의 특징을 위트있게 표현한 '치즈5페라' 네이밍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치즈5페라'는 맛의 핵심이 되는 다섯 가지 치즈가 연출하는 맛의 하모니를 오페라에 비유해 재미있게 표현한 사례다. 제품의 특징을 명확히 표현하고 숫자를 접목한 위트 있는 표현으로 기억에 오래 남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스쿨푸드는 신제품 '갈비어부밥'에 의인화를 시도해 재미를 더했다. 밥 위에 갈비를 올린 메뉴의 비주얼을 마치 갈비가 밥을 '어부바'한 모습으로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송영일 기자

새로 나온 책

마케팅

헬스케어 마케팅 인사이트

김두식 외/엔자임

헬스 커뮤니케이션 전문회사 엔자임이 헬스케어 마케팅의 기본 원리와 국내외 성공 전략을 소개한다. 특히 제약 병원 의료기기 등 다양한 국내외 실전 사례를 통해 엔자임만의 노하우를 전달하고 있어 실전 마케팅 지침서로 활용이 가능하고 최신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건강

고마워 우울증 미미지마 겐이/서다북스

책은 약 없이 우울증을 치료하고 새 삶을 찾은 정신과 의사의 희망 메시지를 담고 있다. 7년간의 우울증에서 벗어난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울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멘탈 테라피를 제시하고 있다.

공복으로 리셋하라

나구모 요시노리/북플리오

1일 1식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붐을 일으킨 저자의 두 번째 공복 프로젝트. 끼니 강박 스트레스성 폭식 등으로 늘 만복 상태에 있는 현대인들에게 공복을 통해 우리 몸의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매일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사는 법을 명쾌하게 전달한다.

역사

높은 중국, 낮은 중국

강효백/휴금블고기

세계의 중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은 전 세계 초유의 관심사다. 이에 저자는 직접 현장에서 체험한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편견 없이 중국을 들여다보고 있다. 중국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

심리학으로 보는 고려왕조실록

석산/평단문화사

역사와 심리학을 접목시켜 500년 고려사의 34명의 왕을 왕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분석을 시도한 책이다. 유기불안 학증 편향 경계선 인격 조작 등 심리학적 개념들을 사용해 왕의 심리를 살펴보고 그들의 심리가 어떻게 역사를 바꾸었는지를 조명한다.

예술 대중문화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DSLR 활용 테크닉 장세현·전국희/한빛미디어

시간 빛·보도 산을 활용해 DSLR 사진을 재미있게 촬영할 수 있는 기법을 알려준다. 배경의 [illegible] 갖춰진 스튜디오가 아니어도 내 집 거실 욕실 혹은 자주 다니는 출사지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특수 촬영 기법을 준비 작업부터 촬영 방법까지 알기 쉽게 설명한다.

자기계발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

최은실/행복카디널

KBS 아나운서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저자는 69가지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실험을 통해 관계 단절이 불안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소통의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관계는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대목은 독자의 공감을 살 만하다.

스포츠

재미있는 야구 사전

강준각/유카리브

2009년 출간된 '재미있는 야구 사전'의 개정증보판이다. 저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야구 용어와 역사, 에피소드들을 독자들이 평소 궁금할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전 형식으로 정리했다. 낫아웃 백도어슬라이드 등의 야구 용어부터 할넬라시요 디티티 등 야구 팬들이 사용하는 유행어까지 다루고 있어 야구를 조금 더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골수 팬들을 위한 야구 기록법을 부록으로 실었다.

경제 경영

아빠! 얼마 벌어? 리다크/펄키하니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갖은 재테크 관련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저자는 그런 책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일침하며 우리 사회의 평범한 가장들에게 현실적인 직언을 던진다. 소비 보험 주식 펀드 등 생활 속 돈과 관련된 분야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가감 없이 쉽게 풀어냈다. 매 장 마지막에는 '아빠들의 실전 사례'를 실어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했다.

감성촌장 펜끝 살아있네

이외수 9년 만에 소설 양심 깨우는 필력 통쾌

트위터 대통령, 감성마을 촌장, 꽃노털 등 다양한 수식어를 달고 살며 '외수 마니아'라는 열광적인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작가 이외수. 그가 뒤틀어진 세상에 변태 이야기를 던지며 9년 만에 돌아왔다.

10편의 단편소설을 담고 있는 '완전변태'는 우선 작가를 애타게 기다리던 독자들을 위해 40년 작가 생활을 관통하는 저자의 언어적 감수성과 감각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책 속 한 작품인 '완전변태'에서 읽을 수 있는 작가의 시선은 우리의 감성뿐만 아니라 무뎌진 양심을 적진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또 끝끝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으려는 한 남자의 고독한 몸부림을 보고 있으면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더욱이 책에서는 금기도 성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저자는 제 기능을 상실한 사회적 존재들을 과감하게 원고지 위에 올림으로써 독자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하고 있다.

'명장(明匠)'에 등장하는 노인은 아름다움과 자연을 벗 삼아 오연지기를 기르며 구도자적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고유의 풍류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그 노인은 대중 혹은 사회적 약자의 가장 절실한 목소리를 대변한다. 또 "예술 종교 교육은 인간의 영혼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유배자 주인공의 말처럼 비뚤어진 모든 것들은 작가의 송곳 같은 날카로움을 피하지 못한다.

즉 이외수는 책 속 모든 작품들을 통해 무엇에든 자신의 신념을 중요하게 간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책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정태련 작가의 생태 관련 세밀화는 그동안 찾을 수 없던 새로운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문장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수십 번의 퇴고를 거듭해 이번 작품을 완성했다는 이외수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완전변태'를 따라가보자.

완전변태 이외수/해냄출판사

/윤재성기자 lsou08@metroseoul.co.kr

중세 시대 가난한 사람들은 부와 지위를 떠나 스트레스를 표출하고 즐기기 위해 베니스 카니발에서 가면을 착용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축제에 점차 귀족들까지 참여해 그 규모는 점점 커지게 됐다. 가면을 쓴 시간만큼은 현실을 잊고 환상의 세계로 떠날 수 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카니발을 찾는 것이 아닐까. 익명성은 그런 점에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 '발길 닿는 곳마다 단편이었네'(최향미/봇나래) 중 -

/디지털기자 kumu08@

예수, 신의 아들 아닌 정치 혁명가?

화제의 책

젤롯

레자 아슬란/와이즈베리

예수의 삶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레퍼토리로 종교뿐만 아니라 학문 문학·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해석되어왔다. 또 새로운 해석이 등장할 때마다 뜨거운 논쟁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해석 하나가 주목받고 있다. 바로 레자 아슬란의 '젤롯'이다.

책은 신적인 존재로만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느님의 나라와 유대의 독립을 위해 싸운 혁명가 '나사렛 예수'를 다루고 있는 논픽션이다. 저자의 이런 독특한 분석은 흥미를 끌어내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학문적인 논리까지 갖춰 이미 미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젤롯은 하느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는 열광적인 신념을 뜻하는데 저자는 이런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 즉 예수가 신의 아들이자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젤롯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유대인의 민중 운동을 이끈 정치가이자 혁명가라는 것이다.

또 책은 예수가 설파했던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이 어떻게 오늘날의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변화했는지를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새로운 해석으로 다가왔지만 예수에 정치적인 색깔을 입혀 큰 논쟁과 파장을 가져온 '젤롯'. 예수의 삶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신념 속으로 들어가보자.

/황혜진기자 hjkim0404@

metro entertainment E

2009년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일명 '빵꾸똥꾸' 정해리 역을 맡아 시청자들을 괴롭혀 얄미운 꼬마를 제대로 소화해냈다 (왼쪽 가운데). 5년 후 어엿한 숙녀로 자란 그는 드라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 반항심 넘치는 10대 미혼모 이세라 역을 맡아 외모뿐만 아니라 연기력까지 성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른쪽).

"반항아? 저는 착한 소녀랍니다"

폭풍성장한 아역배우 진·지·희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역배우 진지희는 여전히 '빵꾸똥꾸'로 남아있겠지만 TV 밖에서 만난 16세 그는 어엿한 숙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빵꾸똥꾸'라는 수식어가 지겹거나 놀림받아서 싫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놀림받은 적도 없다"며 "날 그렇게라도 기억해주고 알아봐주니 기쁘기만 하다"고 어른스럽게 답했다.

김민준기자 anak mdkim@metroseoul.co.kr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서 10대 미혼모 연기 호평받아
'빵꾸똥꾸' 수식어 좋아요… 공효진·하지원 언니 닮고파

 # 캐릭터 위해 뉴스 찾고 주위 사람 관찰

최근 종영한 JTBC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 진지희가 맡은 이세라는 사춘기 소녀가 할 수 있는 시소한 반항부터 임신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파격적인 캐릭터였다.

스스로를 반항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착한 딸이라 설명한 그는 세라를 연기하기 위해 대본 분석뿐만 아니라 10대 미혼모 기사를 찾아보거나 주위의 소위 '나쁜 친구들'을 관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세라도 그렇고 뉴스에 나오는 것만 봐도 그렇고 10대 아이들이 엄청 과격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건 소수예요. TV나 신문을 통해 보여지는 것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캐릭터 분석을 위해 뉴스까지 찾아보는 프로다운 모습을 갖춘 그는 주변 사람들을 모두 연기 스승이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세라라는 캐릭터가 너무 어색하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감독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세라가 어떤 아이인지 분석을 했죠.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과 선배님들 덕분에 캐릭터를 이해하고 연기할 수 있었어요. 감독님이 선생님처럼 무섭기도 하셨지만 대기실에 있을 땐 엄예진 할머니랑 최정윤 엄마랑 수다 떨면서 재미있게 촬영할 수 있었죠."

 # 배우로서 나아갈 길 밑그림 그리는 중

앞으로도 계속 배우로 성장하고 싶다는 그는 닮고 싶은 배우로 공효진과 하지원을 꼽았다.

"하지원 언니의 철저한 자기 관리와 공효진 언니의 당당한 모습을 배우고 싶어요. 아직 중3이라서 구체적인 목표는 잡지 못했지만 대학교에 진학한다면 굳이 연극영화과가 아니더라도 연기에 도움되는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그는 어린 나이지만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차근차근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었다.

"아역배우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할리우드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왔죠. 이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 세라가 조기 유학을 다녀온 역할이라 그동안 준비해왔던 영어 실력이 부족하지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 연기·학업 두마리 토끼 잡기

그는 브라운관 밖에선 수학을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고 친구들과 밥과 꾸 떡볶이 먹으러 갈 생각에 부푼 그저 귀여운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다. 다만 또래들과 그가 다른 점은 연기와 학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받고요. 하지만 학교는 제가 학생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연기는 하고 싶은 일이라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오늘도 스케줄 때문에 학교를 못 가서 걱정이에요. 자주 빠지면 수업 따라가기도 어렵고 또 친구들이 뭐 하고 놀았는지 궁금하고, 아쉽고, 같이 놀고 싶고 그래요."

지난해 2학기 전교 부회장으로 선출돼 이번 학기부터 학생 임원으로 활약할 정도로 학교 생활에 적극적인 그는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에 화색을 띠며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동시에 배우의 면모도 잊지 않았다.

"부회장이 된 건 작년 담임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시고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잘 밀어줘서인 것 같아요. 인기가 많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얼마 전엔 친구들이랑 수업 끝나고 영화 '수상한 그녀'를 보러 갔어요. 심은경 언니의 연기를 보니 밝고 사랑스러운 역할도 하고 싶더라고요. 아역배우 출신 언니, 오빠들이 연기로 인정받고 좋은 역할을 맡는 걸 보면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버들화와 로드(기자들) 디자인/석은지

악동뮤지션

엑소 왼쪽부터 수호, 시우민 타오, 디오, 크리스, 케이 루한 카이 백현, 찬열 세훈 신

YG·SM 대결 2라운드 '카운트다운'

악동뮤지션 정규1집 7일 발표…엑소 컴백쇼 14일 개최

국내 연예계를 양분하는 대형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또다시 정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SM 소속 그룹 소녀시대가 미니앨범 '미스터미스터' 음원을 발표하자 YG의 2NE1이 27일 정규 2집 '크러시'의 음원을 공개하고 정면 대결을 펼쳤다. 그동안 두 기획사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하기 위해 소속 가수들의 컴백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달라지고 있다. 이번엔 YG가 한 발 앞섰다.

지난달 31일 YG 대표 양현석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악동뮤지션의 데뷔 소식을 전했다. 양현석 대표에 따르면 악동뮤지션은 지난해 4월 7일 SBS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시즌2'(이하 'K팝스타2')의 우승 후 정확하게 1년 만인 이달 7일에 정규 1집을 발표한다.

지난해 'K팝스타2'에서 우승을 차지한 악동뮤지션은 당시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참신한 발상의 가사와 매력적인 보컬로 큰 화제를 모았었다.

악동뮤지션의 컴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SM 소속 그룹 엑소도 돌아온다.

엑소는 오는 15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엑소 컴백쇼'를 개최하고 새 미니앨범 활동을 시작한다. 엑소는 지난해 발표한 첫 정규앨범 'XOXO'로 명실상부 가요계 최고의 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늑대와 미녀' '으르렁' 두 곡을 연이어 히트시킨 엑소는 12년 만에 음반 판매량 100만 장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정상에 우뚝 섰다.

이에 엑소의 컴백 소식에 팬들은 물론 가요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엑소 K와 엑소 M으로 한국, 중국에서 동시에 활동하며 한 층 성숙한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녀시대와 2NE1에 이어 대세돌 엑소와 악동뮤지션의 정면 대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민준기자 ymk@metroseoul.co.kr

필리핀 재난 지역 아이들이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의 메시지가 담긴 드림노트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JYJ 필리핀에 드림노트 2만권 전달

기부 아이돌 JYJ가 새로운 방식의 선행으로 재난 지역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국제구호개발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은 JYJ가 태풍 하이엔으로 피해를 입고 시름에 잠긴 필리핀 지역의 아이들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친필 사인을 담은 드림노트 2만 권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월드비전 측은 "교육 기자재와 물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응원 메시지가 담긴 노트가 아이들에게 큰 격려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JYJ는 월드비전 해외아동후원자로 콩고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으며 2011년 쇼케이스 수익금 3000만원으로 콩고 카란다 초등학교 위생·보건 사업을 지원했다. 또 일본 대지진과 태국 수해 복구 등기로 5억여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남수단 망고나무 심기 캠페인에 24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번 드림노트에는 JYJ뿐 아니라 최민식 설경구 박성웅·이정재·송지효·강혜정·박유환 등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들도 참여했다. /유순호기자

김바다·정동하 월드컵 응원가 '승리하라, 대한민국' 공개

가수 김바다(왼쪽 사진)와 정동하(오른쪽)가 최초의 듀엣곡 '승리하라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1일 소속사 에버모어뮤직은 "김바다와 정동하가 함께 부른 2014 브라질 월드컵의 응원가 '승리하라 대한민국'을 1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무장르 뮤지션 비뮤티가 작사·작곡·편곡한 '승리하라 대한민국'은 격렬한 축구와 잘 어울리는 록 사운드를 기반으로 김바다 정동하의 보이스와 밴드의 조화를 이루는 곡이다.

뛰면서 하는 응원 박자에 맞춰 만들어진 만큼 박진감이 넘치고 따라 부르기 쉽다. /유순호기자

악기로만 승부한 곡 들어보실래요?

인피니트 '더 오리진' 발매

'군무돌' 인피니트(사진)가 인스트루멘틀 버전 앨범 '더 오리진'을 발매한다.

10일 발매되는 '더 오리진'에는 인피니트의 대표곡 30곡이 3장의 CD로 담겼다.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아이돌 음악은 가볍고 유행이 지나면 듣지 않는 것이라는 편견 속에서 독자적이고 음악적인 힘을 바탕으로 성장한 인피니트만의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인스트루멘틀 버전은 보컬이나 코러스를 뺀 악기로만 구성된 순수 연주곡으로, 기존의 대표곡들을 인스트루멘틀 버전 앨범으로 발매하는 것은 국내 최초의 시도라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은 2011년 1월 발표한 앨범 '에볼루션'의 수록곡 'B.T.D'다. /유순호기자

가수 앤씨아, 손연재 갈라쇼 무대 선다

가수 앤씨아(사진)가 닮은꼴 스타인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의 갈라쇼 무대에 선다.

앤씨아는 26~27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갈라쇼 'LG휘센 리드믹 올스타즈 2014'에서 축하 공연을 한다. 고교 2학년이던 지난해 8월 데뷔한 앤씨아는 나이답지 않은 빼어난 음악성은 물론 깜찍한 외모로 인해 '손연재 닮은꼴'로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앤씨아는 "손연재 선수의 경기 모습을 보며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꼭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갈라쇼 무대에서 공연까지 하게 돼 꿈만 같고 행복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갈라쇼에는 앤씨아를 비롯해 김범수, 걸스데이, W필하모닉오케스트라, 크리안말레씨어터 등 클래식 연주자와 K-팝 스타들이 참여해 리듬체조와 이색적인 조화를 선사한다.

한편 앤씨아는 9일 첫 번째 미니앨범을 발표한다. /유순호기자

대한민국 노처녀 여러분,
잘들 지내시죠?

막돼먹은 영애씨 13

tvN 다큐드라마

매주 |목| 밤 11시 tvN 방송 / 3월 27일 첫방송

두 남자의 카리스마 누가 셀까

'골든 크로스' 김강우 검사 역… '너희들은 포위됐다' 차승원 강력계 형사 변신

KBS와 SBS가 각각 '골든 크로스'와 '너희들은 포위됐다'로 수목극 2차전에 돌입했다. 김강우·차승원이라는 묵직한 남자 배우로 승부수를 띄웠다.

시작은 KBS2 '골든 크로스'가 빠르다. '감격시대'의 후속작으로 9일 첫 방송 예정이며 배우 김강우의 복합적인 감정 연기가 기대되는 작품이다. 그는 카리스마 있는 신입 검사 강도윤 역을 맡았고 강도윤은 여동생의 죽음과 관련된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절대 권력에 뛰어들어 복수를 다짐하면서도 권력 앞에서 갈등하는 인물이다.

지난달 21일 김강우의 첫 촬영이 경기도 파주 단현면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에서 이뤄졌다. 현장에서 그는 여동생이 살해되고 범인으로 아버지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복잡한 심경을 표현해야 했다.

6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장면은 강도윤이 권력에 뛰어드는 계기를 제공하는 중요 장면으로 김강우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쏟아내는 열연을 펼쳐 현장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후문이다.

김강우와 이시영·엄기준·한은정이 출연하는 '골든 크로스'는 대한민국 상위 0.001%의 음모에 휘말려 가족을 잃은 엘리트 검사의 탐욕 복수극을 그린다.

차승원

차승원은 2011년 MBC '최고의 사랑' 이후 오랜만에 SBS '너희들은 포위됐다'로 안방을 찾는다.

그는 전작과는 다른 매력으로 여심을 흔들 예정이다. '최고의 사랑'에선 남자답지만 사랑하는 여자에겐 애교있는 독고진 역을 소화했다면 이번 작품에선 강력계 3팀 팀장 서판석으로 분해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펼친다.

지난달 말 첫 촬영에 돌입한 차승원은 이승기와 범인을 잡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장면을 촬영하면서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촬영장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명절날 사촌 형과 사촌 동생들을 오랜만에 만나 소소한 일상을 묻는 듯한 훈훈한 첫 촬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달 30일 첫 방송 예정인 '너희들은 포위됐다'는 차승원·이승기·고아라의 출연으로 최강 비주얼의 경찰들이 펼치는 청춘 로맨스 수사물이다.

/권혜진 기자 jeenh@metroseoul.co.kr

김강우

'야구 읽어주는 남자' MC 걸그룹 달샤벳 수빈 발탁

걸그룹 달샤벳의 수빈(사진)이 야구 여신으로 변신했다.

수빈은 지난달 31일 MBC '야구 읽어주는 남자'에 MC로 등장해 이성배 아나운서와 함께 호흡을 맞췄다.

수빈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MC까지 맡게 돼 감사하다"며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편안하고 친근한 진행과 통통 튀는 매력으로 재미있게 야구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첫 방송 소감을 전했다.

그동안 수빈은 올레TV 편파 야구중계 광고를 비롯해 MBC스포츠 플러스 '진격의 어인구단 여우야' 등을 통해 야구와 꾸준한 인연을 맺어왔다.

'야구 읽어주는 남자'는 야구 팬들도 잘 알지 못하는 야구의 세계를 속속들이 알려주는 야구 전문 토크쇼로 박재홍 해설위원, 인승호 스포츠경향 기자, 걸그룹 베스티의 다혜가 패널로 출연한다. /김지민 기자

김혜리, 오현경과 한지붕 곰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배우 김혜리(사진)가 곰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김혜리의 새 소속사 곰엔터테인먼트는 "개성 있는 매력의 이미지를 가진 배우 김혜리를 영입함으로써 더 다양성을 띤 곰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시너지를 내면 좋겠다.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혜리는 지난해 MBC 주말극 '스캔들: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에서 1980년대 톱스타 고주란 역을 맡아 극중 박상민과 신은경 사이에서 삼각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물들의 비밀에 대한 키를 모두 쥐고 있는 역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다. 곰엔터테인먼트에는 박선영·오현경·오나라·허영란·문지윤이 소속돼 있다. /황성운 기자 jabongs

<박시후 박해진>

중국 무대로 보폭 넓히는 '양박'

박시후 베이징서 영화 '향기' 제작발표회… 박해진 中 톱배우 우슈보 만나

이민호·김수현의 중화권 인기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배우 박시후·박해진의 중국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배우 박시후가 지난달 26일 중국 영화 '향기'의 제작발표회를 통해 중국 내 인기를 실감했다.

베이징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발표회엔 박시후를 보기 위해 350여 명의 한국·중국 팬과 70여 개 매체 100여 명이 넘는 내·외신 기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하며 중국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에 화답했다.

박시후의 첫 중국 진출작인 '향기'는 올해 여름 개봉 예정이며 그는 영화에서 한국인 디자이너 김인준 역을 맡아 중화권 여배우 천린과 정통 멜로 연기를 펼쳤다.

배우 박해진은 중국에서 '박해진 브랜드'를 론칭하며 디자이너로 데뷔했고 지난달 26일에는 중국 톱 배우 우슈보와 만났다.

앞서 우슈보는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 속 이휘경 캐릭터의 전앙을 밝혔고 이날 만남에서 그는 '별그대'의 장면을 꼽으며 "형이 살인마인 것을 알았을 때 휘경의 표정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고 박해진의 연기를 극찬했다.

이에 박해진은 "아직 갈 길이 먼 배우다. 캐릭터에 어떻게 박해진만의 색을 입힐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연기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중국 영화 '향기'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박시후(위), 박해진의 연기를 극찬한 중국 톱 배우 우슈보(아래)

박해진 소속사 측 관계자는 "일본의 빈번한 규 영향에 배우들의 중국 진출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예전부터 이어져온 한국 드라마의 중국 인기가 유지되고 있는 게 큰 힘이다"고 최근 두드러진 국내 배우들의 중화권 진출 배경을 설명했다. /전효진 기자

김윤서 '개과천선' 출연

배우 김윤서(사진)가 MBC 새 수목극 '개과천선'에 신인 여배우 정혜원 역으로 캐스팅됐다.

'개과천선'에 김명민과 함께 출연하게 된 김윤서는 "김명민 선배의 첫 호흡인 만큼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10년 영화 '악마를 보았다'로 데뷔한 김윤서는 이후 SBS '신사의 품격', KBS2 '최고다 이순신', SBS '열애' 등에 출연했다. 김윤서는 차가워 보이는 외모와 달리 다양한 캐릭터를 맡으며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종횡무진하며 얼굴을 알려왔다.

특히 '최고다 이순신'에서 그는 이순신(아이유)의 라이벌 최연아로 등장해 사사건건 부딪치는 얄미운 캐릭터를 잘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달 방영 예정인 '개과천선'은 현재 방영 중인 '앙큼한 돌싱녀' 후속작으로 드라마 '골든타임'을 집필한 최희라 작가와 드라마 '스캔들'을 연출한 박재범 PD가 뭉친 작품이다. /김지민 기자 kimjiimin@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한국 로케 가자"

'어벤져스2' 촬영 이어 '스파이더맨2'도 관심

할리우드가 돈이 되는 한국 영화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최근 투자와 로케이션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추세다.

최근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곳은 '어벤져스' '엑스맨' '아이언맨' 등 히어로 무비를 전 세계에 히트시킨 마블 스튜디오다. 내년 개봉을 앞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이 배경을 한국으로 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약 보름간 마포대교 등 서울 곳곳에서 로케이션을 진행한다. 한국 여배우 인 수현도 주요 배역으로 기용됐다. 2011년 6월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본 레거시'가 촬영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소규모였기에 할리우드의 본격적인 한국 로케이션은 '어벤져스2'가 처음이다.

24일 개봉 예정인 또 다른 할리우드 히어로 무비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도 서울 로케이션 가능성을 시사했다.

어벤져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아시아투어 기자회견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투어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작자 아비 아라드는 한국 시장의 가치에 대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편으로 내한했을 당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현재 할리우드 영화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촬영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한국에서 촬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영화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은 투자로도 이어지고 있다. 폭스 인터내셔널 프로덕션은 지난해 한국 영화 투자·제작을 시작했다. 첫 번째 결과물로 신하균 주연의 '런닝맨'에 전액 투자했고, 앞으로 몇 편을 더 선보일 예정이다.

이처럼 할리우드가 작은 나라 한국에 주목하는 까닭은 한 해 관객이 2억 명에 이르고, 1000만 관객 외화가 나오는 등 한국 영화 시장의 파급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돈이 된다는 얘기다.

'아바타'가 1300만 관객을 모은 것을 시작으로 '어벤져스'(700만 명), '다크 나이트 라이즈'(650만 명), '아이언맨3'(900만 명), '겨울왕국'(1000만 명) 등이 괄목할 만한 흥행을 기록했다.

할리우드의 관심은 한국 영화 발전에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기획·제작 초기부터 할리우드와 협업하는 사례도 늘어나 해외 수출에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개봉한 송강호·크리스 에반스 주연의 '설국열차'가 대표적인 예다. 한국 로케이션의 경우에도 국내 스태프들이 촬영에 참여해 할리우드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 영화 관계자는 "한국 영화 시장에 대한 할리우드의 관심이 최근 상당히 높아진 건 분명하다. 중국을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급부상했다"면서 "일본에 비해 인구 수는 적지만 수익률은 대단히 높다. 이런 관심이 한국 영화 시장뿐 아니라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이병헌 '터미네이터5' 캐스팅

'터미네이터5'가 월드스타 이병헌(사진)을 원했다.

배우 이병헌이 할리우드 시리즈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에 출연한다. 최근 출연을 확정 지은 그는 현재 역할에 대해 협의 중이다. 'G.I.조' 시리즈와 '레드' 등 할리우드 영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소화했던 만큼 새 영화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는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다섯 번째 영화지만, 4편까지 개봉된 기존 시리즈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번 영화는 리부트 시리즈 3부작의 첫 번째 영화다.

시리즈를 대표하는 배우인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에서 돌아와 4편의 공백을 깨고 다시 주연을 맡는다. 제이슨 클락이 존 코너, 에밀리아 클라크가 존의 엄마 사라 코너 역으로 캐스팅됐다. 영화는 다음달 초 촬영을 시작해 내년 개봉할 예정이다.

TV 시리즈 '왕좌의 게임'과 영화 '토르: 다크 월드' 등을 연출한 앨런 테일러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유순호기자

'드라이브' 잇는 액션 누아르 온다

'온리 갓 포기브스' 개봉

영화 '드라이브'의 라이언 고슬링과 니콜라스 빈딩 레픈 감독이 다시 만난 '온리 갓 포기브스'가 하드보일드 액션 누아르 열기를 몰고 온다.

'온리 갓 포기브스'(사진)는 환락과 폭력으로 물든 도시인 태국 방콕에서 살해당한 형을 위해 나선 한 남자의 잔혹한 복수를 그린 영화다. '드라이브'로 제64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니콜라스 빈딩 레픈 감독과 주연배우 고슬링의 두 번째 만남으로 화제가 되는 작품이다.

1일 공개된 포스터는 어딘가를 응시하는 고슬링의 고독한 눈빛과 서늘한 표정을 담아냈다. 여기에 '복수는 더 차가워졌다'라는 짧고 강렬한 카피가 '드라이브'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떠올리게 한다.

고슬링이 형의 복수를 다짐하는 줄리언을 연기하고, 고혹적인 여배우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가 줄리언의 어머니 크리스탈 역을 맡았다. 태국 국민배우 비데야 판스링감이 '악마'라 불리는 전직 경찰 챙으로 출연한다.

/유순호기자 suno@

마이클 잭슨 새 앨범 발매

'팝의 황제' 고 마이클 잭슨(사진)의 새 앨범 '엑스케이프'가 발매된다.

다음달 13일 발매되는 이번 앨범에는 신곡 8곡이 수록된다. 또 팬들을 위해 오리지널 형태의 음원도 모두 수록된 디럭스 에디션도 함께 발매된다.

마이클 잭슨의 미공개 신곡이 담긴 이번 앨범은 에픽 레코드의 대표 엘 에이 리드에 의해 기획됐다. 그는 유가족들에 의해 처음 발견된 마이클 잭슨의 미공개 작업물을 열람할 권한을 부여받아 최종 곡 목록을 프로듀서들에게 전달했고, 프로듀서들은 신선하고 현대적인 사운드를 더하되 마이클 잭슨의 오리지널리티는 유지하는 프로듀싱 작업을 진행했다.

평소 앨범 수록곡 제목을 빌려 앨범 타이틀을 정했던 잭슨의 결정 과정을 고려해 이번 앨범도 수록곡 '엑스케이프'와 같은 이름으로 앨범명을 정했다고 소니뮤직은 설명했다.

/정성문기자 jsm@

'나의 독재자' 크랭크인

배우 설경구(사진)와 박해일이 부자로 호흡을 맞춰 화제를 모은 영화 '나의 독재자'가 윤제문, 이병준, 류혜영, 이규형 등 연기파 배우들의 캐스팅을 확정 짓고 크랭크인했다.

'나의 독재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1970년대, 회담의 리허설을 위한 독재자 김일성의 대역으로 선택된 무명 연극배우 성근(설경구)과 아들 태식(박해일)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윤제문은 중앙정보부 오계장, 이병준은 성근의 연기를 연출하는 허교수 역을 맡았다. 류혜영은 태식을 짝사랑하는 여정을 연기한다. 뮤지컬스타 이규형은 성근의 대본 담당 철주 역으로 스크린 데뷔를 치른다.

26일 전북 남원에 위치한 소극장에서 진행된 첫 촬영은 연극 리허설 현장을 배경으로 객석에서 청소 잡일을 하며 무대 위 주인공을 선망하는 성근의 모습으로 시작됐다. 대사를 달달 외울 정도로 열정만은 주연배우 못지않지만 실제는 광인과 구경꾼이 무대 위 경력의 전부인 성근의 현실을 담아낸 첫 촬영은 무명배우로 분한 설경구의 자연스러운 연기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당일 촬영이 없던 박해일, 이규형, 류혜영이 크랭크인 현장을 찾아 응원했다. 영화는 하반기 개봉 예정이다.

/탁진현기자

롯데 강민호 한 경기 홈런 두방　KIA 이대형 개막 2연전 4안타 '펄펄'

'FA 대어들' 이름값하네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들이 시즌 초반부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FA 최고 금액 75억원을 받고 롯데 자이언츠에 잔류한 강민호(왼쪽 사진)를 비롯해 한화 이글스에 새 둥지를 튼 정근우(70억원)와 이용규(67억원), 고향팀 KIA 타이거스로 간 이대형(24억원·오른쪽) 등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FA 계약에 걸맞은 활약을 펴고 있다.

이들은 개막 2연전에서 지난해 경기력보다 좋은 활약을 펼치며 '먹튀' 논란을 잠재우고 있다.

강민호는 한 경기에서 홈런을 2개나 쳐내며 지난해의 부진을 씻었다. 한화의 테이블세터로 나선 이용규와 정근우는 완벽한 조합을 자랑했다. 이대형은 '슈퍼소니'의 부활을 알렸다.

강민호는 지난달 30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개막전에서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6번 타자로 나서 첫 타석에서 볼넷을 얻은 것을 빼면 삼진과 플라이로 물러나며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팀도 2-4로 패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엔 FA의 진가를 보였다. 0-2로 뒤진 6회말 무사 1루에서 구원투수 최영환으로부터 좌월 동점 투런포를 날렸다. 이전 두 타석에서 연거푸 삼진을 당해 부진이 계속되나 싶었지만 한방으로 팀을 살렸다. 8회말에도 우월 솔로포를 날려 홈런 2개로 팀의 첫 승을 이끌었다.

지난해 9월 왼쪽 어깨 회전근 봉합 수술을 받아 아직 송구를 할 수 없는 이용규는 지명타자로 출전해 활약하고 있다. 2경기 10타수 3안타로 타율 0.300을 기록 중이다. 개막전에서는 2회초 2사 1루에서 안타를 쳐 찬스를 만들었고 펠릭스 피에의 안타로 홈까지 밟았다. 지난달 31일에는 안타는 치지 못했지만 좋은 타격감을 이어갔다.

정근우는 6타수 1안타로 타율은 0.167이지만 볼넷 3개를 골라내 출루율은 0.444를 기록했다.

이 둘의 출루율이 높아질 경우 후런보다 2·3루타 시 득점 가능성은 높아진다.

KIA의 이대형은 개막 2연전에서 8타수 4안타 1타점 1득점을 올렸고, 빼어난 도수비로 부활을 예감케 했다. 다만 29일 경기에서 도루를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연속 도루왕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출루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도루 기회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시범경기에서부터 '먹튀'의 오명만은 쓰지 않겠다는 투지를 보이고 있어 올 시즌 활약에 기대를 모은다.

/정하은기자 yse@metroseoul.co.kr

1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프로배구 챔피언결정전 3차전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의 경기. 득점에 성공한 삼성화재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세트스코어 3대0 삼성화재 승리. /연합뉴스

레오 32점…삼성화재 1패 뒤 2연승

남자 프로배구 정규리그 우승팀 삼성화재가 챔피언결정전에서 2연승을 거두며 7년 연속 통산 8번째 우승에 한 발 더 가섰다.

삼성화재는 1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농협 2013-2014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3차전에서 현대캐피탈을 세트 스코어 3-0(25-23 25-18 25-21)으로 제압했다.

32점을 올린 레안드로 레이바 마르티네스(등록명 레오)가 높은 공격 성공률(66.67%)을 보이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레오는 1세트 팀정 높은 오픈 공격으로 홀로 11점을 기록하며 스코어를 23-21로 만들었으며 이후 23-22, 24-23에서도 현대캐피탈의 수비를 뚫고 두 차례 오픈 공격에 성공했다. 또 2세트와 3세트에서도 레오는 전 추위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성공시키며 3세트 만에 경기를 끝냈다.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은 3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챔피언결정전 4차전을 벌인다.

/김승진기자 @nh 99@metroseoul.co.kr

배구 챔프전 3차전 1일

현대캐피탈	0	3	삼성화재

'잠 못드는 공주' 김연아

5월 아이스쇼 갈라 프로그램 '투란도트' 선정

'피겨 여왕' 김연아(24·사진)가 자신의 은퇴 무대에서 '잠 못드는 공주'로 변신한다.

김연아는 다음달 4~6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특설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삼성 갤럭시★스마트에어컨 올댓스케이트 2014'에서 새 갈라 프로그램인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공개한다고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가 밝혔다.

'투란도트'는 푸치니의 생애 마지막 오페라로 낭만적이면서도 웅장한 멜로디가 특징이다. 칼라프 왕자가 투란도트 공주에게 건네는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공주는 잠 못 이루고'는 아리아 중 스케일이 크고 멜로디가 화려하다. 김연아 특유의 풍부한 감정 연기가 이 곡과 잘 어우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아는 "항상 연기해보고 싶었던 음악 중 하나로 나만의 연기를 통해 관객들과 교감하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 기술보다 감정 표현을 충분히 하는 안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무가 데이비드 윌슨은 "온전히 아이스쇼를 위한 작품으로 김연아만의 풍부한 감정 연기와 섬세한 표현력이 관객에게 최고의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suno@

류현진 응원하러 미국 가는 수지

내달 27일 다저스 경기 시구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LA 다저스)이 '국민 여동생' 미쓰에이 수지(사진)의 현장 응원을 받는다.

수지는 다음달 27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에 시구자로 나선다. 이날 경기에 류현진이 등판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등판과 상관없이 두 사람이 함께 관중 앞에 나서는 이벤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소녀시대의 티파니와 써니가 각각 5월과 7월 다저스타디움에서 시구를 하고 류현진이 공을 받는 이벤트를 선사한 바 있다.

수지는 자신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의 광고 영상에서 류현진과 다저스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평소 류현진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내 왔다. 류현진도 과거 한 인터뷰에서 "수지가 자신의 경기에서 시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쏠린다.

/유순호기자

추신수 개막전 무안타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2)가 팀 이적 후 첫 공식 경기인 2014시즌 개막전에서 무안타에 그쳤다.

추신수는 1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 1번 타자 겸 좌익수로 나와 4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7년 1억3000만 달러의 초대형 계약을 맺고 텍사스의 새로운 톱 타자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추신수는 시범경기에서부터 컨디션 난조를 보이며 타율 0.161로 부진했다.

이날 경기에서도 첫 타석에서 중견수 플라이,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2루 땅볼로 물러났다. 4회에서도 유격수 땅볼을 쳐 야수 선택으로 1루를 밟았다. 6회에는 스탠딩 삼진을 당했고 7회 마지막 타석에서 6구 끝에 볼넷을 얻으며 출루 본능을 보여줬다. 텍사스는 10-14로 패했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1일

■ 잠실

SK	501	000	313	12
LG	020	001	002	5

[illegible]

■ 목동

두산	003	000	000	3
넥센	010	015	02X	9

[illegible]

■ 대전

삼성	000	002	022	6
한화	031	001	000	5

[illegible]

■ 광주

NC	000	000	000	0
KIA	000	000	01X	1

[illegible]

ACL 조별리그 4차전 1일

서울	2	2	히로시마

[illegible]